

남가주 동창회 신년하례 및 정기총회 성황리에 개최

새회장엔 강신용 (사대 73) 동문 취임



지난 2월 3일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Oxford Palace Hotel에서 2018년 서울대학교 남가주 동창회 정기총회 및 신년회가 300여 명의 동문들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유병원(상대 76) 총무국장의 사회로 개회선언에 이어 애국가 제창(선창: 장진영, 음대 88)과 교가(선창: 방석훈, 농대 56) 제창이 있었다. 다음 내, 외빈 소개에 이어 오홍조(치대 56) 전 총동창회장의 격려사가 다음과 같이 있었다. "신년총회에 참석하여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대단히 행복합니다. 저는 1999년 24대 동창회장을 역임하면서 서울대학교 동창회의 산 증인으로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사랑하는 마음이 모여 발전을 거듭하여 미주동창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미주 동포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따뜻한 격려와 손길을 내밀어 더욱 자랑스런 동창회가 되도록 노력합니다. 오늘처럼 내일도 열심히 살아 가는 서울대인

이 됩시다." 성낙인(법대 68) 서울대 총장이 축사를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보내 왔다. "서울대 미주 동문 여러분께서는 정직과 성실, 헌신으로 미국 사회에서 한국인의 긍지와 위상을 드높이고 계십니다. 특히 2,500여명의 남가주 지역 동문들께서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 끈끈한 동문 결속과 친교, 교류로 미주 동문사회를 선도해 왔습니다. 오늘 새로이 남가주 동창회 회장으로 취임하시는 강신용 동문님은 총무국장 등으로 많은 일을 해 오셨으며, 공회계사로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 오셨습니다. 앞으로 신임 강신용 회장님의 이러한 경험, 지혜, 열정과 탁월한 리더십을 통해 다른 어떤 지역동문회 보다 동문들의 화합과 결집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동문 여러분의 지속적인 건승을 기원합니다."

다음 윤상래(수의대 62) 미주동창회장은 축사에서, "오늘 선후배 동문님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남가주 동창회는 지난 43년간 끊임없는 발전을 하여 서울대 미주동창

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그 반석 위에서 더 큰 발전을 할 것을 믿습니다. 미주동창회도 금년에 27주년을 맞이합니다. 당면한 고령화의 문제는 장래의 심각한 도전을 부여합니다. 현재 미주동창회비나 후원금이 50, 60대 동문님들에게서 오는데 향후 10년, 20년이면 미주동창회에 재정 곤란이 올 것입니다. 미주동창회는 고정 경비가 있어서 재정 자립이 절대로 요구되고 바, SNUAUSA FOUNDATION은 이런 면에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설립,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가주 동창회는 가장 큰 지부로서 여러분의 참여가 있으면 미주동창회의 기금 육성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가주 동창회의 발전을 기원하며 강신용 신임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병원 총무국장의 사업보고와 송두일(상대 82) 재무국장의 재무보고로 이어졌다. 이어강신용(사대 73) 신임회장 및 한귀희(미대68) 수석부회장 인준이 있었고, 성

주경(상대 68) 총동창회장의 정기이사회 결의사항 보고가 있었다. 다음 성주경 총동창회장이 이임회장단에게 감사장을 증정하였고, 정인환(법대 54) 법대회장, 한효동(공대 58) 공대회장, 한귀희(미대 68) 미대회장, 이호진(간호대 74) 간호대회장, 권희재(상대 80) 상대회장, 안혜정(가정대 77) 가족의 밤 위원장, 염인숙(가정대 78) 가족의 밤 위원장 등에게 공로패를 증정하였다.

이어 박선우(음대 13) 동문에게 발전기금 미주재단 이만택(의대 52) 이사장이 장학금 \$2,500을 수여하였는데, 박선우 동문은 서울예고와 서울음대 성악과를 전액 장학생으로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다수의 콩쿨에서 수상했으며, 현재 USC Thornton School of Music에서 우수 장학생으로 석사과정 이수 중이다. 2018년 4월 Postcard from Morocco에서 Lady with Hand Mirror주역으로, 또한 2018년 아스펜 뮤직페스티벌 장학금 수료 및 공연 예정에 있는 장래가 촉망되는 동문이다. 성주경 총동창회장의 이임사

>> 6면에 계속

NON-PROFIT
US POSTAGE PAID
LANSDALE, PA
PERMIT No. 113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2017년 동창회비를 아직 납부하지 못한 동문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속히 동창회비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 \$75, 2년: \$150 / payable to SNUAUSA-USA)

SNU Alumni Association 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제5회 서울대 국가정책포럼

성낙인 총장 기조 발제

현실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헌법상 정부형태에 관한 논의는 대체로 미국식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절충형(권력분산형), 이원정부제(반대통령제)로 나눌 수 있다.

대통령제는 미국에서 정립된 모델로 대통령을 중심으로 일원화된 집행부의 권력구조와 의회 사이에 두 개의 국민적 정당성의 축이 병존한다. 대통령과 의회가 상호 독자적이라는 점에서 엄격한 권력분립의 모델이다. 대통령제 하에 우리나라가 평화적 정권교체를 거듭했다는 점에서 성공을 거두기도 했지만, 러시아에선 변칙적 장기 집권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의원내각제는 유럽에서 정립된 모델로 집행부의 구조가 국가원수와 수상으로 이원화돼 있지만 집행권은 사실상 수상을 중심으로 한다. 정부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정치적 책임을 다할 의무와 함께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메커니즘 또한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와 의회는 그 성립과 존속이 상호 연계돼 있다.

후발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두 모델 중 하나를 채택해 실행했지만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채 잦은 정변을 야기시켰으며, 독일프랑스 같은 선진국에서도 각각 건설적 불신임투표제,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는 등 절충형 정부형태를 띠고 있다.

이원정부제는 대통령제적 요소와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각각 37.5%이상 62.5%이하를 띠며 대통령 직선제와 대정부 불신임권을 특징으로 한다. 성 총장은 “헌행헌법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는 가운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킨다는 점에서 이원정부제가 가장 현실적인 개헌 방향”이라며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전통적 지위와 권한을 갖지만 일상적인 행정권의 실질적 책임과 권한은 국무총리에게 부여하는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직대통령이 재선에 출마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관권선거 등 문제점을 고려할 때 당분간 5년 단임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제왕적 대통령제는 역대 대통령의 임기말 부패 스캔들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

“이원정부제, 제왕적 대통령 견제하는 가장 현실적 대안”



2018년 새해를 맞아 개헌이 본격적인 화두에 오르고 있다.

최근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회사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72.3%가 1987년 만든 현행 헌법을 고쳐야 한

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11명 중 7명이 바람직한 권력구조 개편으로 이원정부제를 선택

했는데, 이보다 앞서 지난해 11월 관악 캠퍼스 삼익홀에서 열린

제5회 국가정책포럼에서 성낙인 모교 총장 또한 ‘헌법,

민주시민의 생활현장으로’라는 발표문을 통해 같은 의견을

내내 눈길을 끈다.

으며, 권력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해 대통령의 절대적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나날이 부각되는 개헌 필요성

1987년 민주항쟁의 결과 이뤄진 개헌은 급

작스럽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시 시대적 요청인 대통령직선제는 마련했지만, 다른 부분에선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성 총장은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 헌법은 21세기적 시대요청인 세계화·지방화·정보화 또한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화 측면에서 다문화는 우리사회의 엄연한 현실이어서 국가 최고규범인 헌법이 더 이상 민족주의적 관념을 고집할 수 없게 한다. 또 △중앙집권화된 국가체제로는 능동적이고 참여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지방분권을 강화해 각 지역이 고유의 특색을 살리고 국민 참여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정보화는 우리의 일상에 빠르게 스며들었다. 기본권 측면의 알권리·사생활보호 차원뿐 아니라 정보 격차의 해소, 국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은 민주주의의 현실적 구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 더욱 중요하다.

성 총장은 한편 “정부형태에 대통령을 두는 한 헌법은 대통령 유고시 확인절차를 마련하고 권한대행 또는 후임자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세밀하게 규정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유고 당시 이를 공식적으로 판단할 기관이 없어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의 유고를 확인하는 등 혼란을 겪은 바 있다. 그는 또 대통령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자선거와 대통령 유고에 따른 후임자선거 규정이 어긋나는 데 따른 문제점도 꼽았다. 예컨대 대통령 선거기간 중 유력 후보가 사망할 경우를 대비한 규정이 없다. 성 총장은 “1956년, 1960년 대선 때 민주당의 신익화·조병옥 후보가 사망함으로써 선거가 변질된 실례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것은 중대한 헌법적 공백”이라고 짚었다.

그밖에 성 총장은 “그간의 개헌은 주로 권력구조에 관한 내용이 주류를 이뤄 국민 기본권에 관한 논의는 다소 소외돼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헌법상 기본권 특히 자유권을 단순히 자유 또는 권리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안전까지 포괄하는 형태의 기본권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최근 촛불혁명 이후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이 제한적으로 작동되는 측면을 고려할 때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위한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태 기자]



송상현 (법대 59)

제2대 국제형사재판소장

제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난 인류는 다시는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세계대전을 방지하고 세계평화를 누리고자 유엔을 창설하였다. 유엔은 국제사법재판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집단안전보장체제라는 두 가지 수단을 가지고 그동안 불충분하나마 세계평화를 잘 유지하여 왔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주로 국가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충갈을 드는 대신 재판을 통하여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주는 사법기관이다. 안보리의 집단안전보장체제는 한국전쟁 당시의 군사개입이나 최근의 각종 집단재제에서 볼 수 있다시피 그 나름대로 국제사회에서 전쟁억제와 평화유지기능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전후 70여 년 동안 유엔의 이같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부족하고 성에 안착하는 느낌이 있었다. 그것은 유엔의 집단안전보장체제를 가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도 그 전쟁을 일으킨 주범을 처단하여 응보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즉 유엔의 군사개입이나 외교적 노력을 통하여 평화와 안전을 확보한 경우에도 전쟁이나 집단학살의 책임자는 이런 저런 이유로 부정축재한 재산을 가지고 여생을 편안하게 보낸다면 인류의 양심과 정의는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것이 인류의 영원인 국제형사재판소가 탄생한 배경이고 필요성인 것이다.

국제사회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뉘른베르크와 도쿄에 전범재판소를 설치하여 전쟁범죄자들을 단죄함으로써 최초로 개인

국제형사 정의의

새로운 변화

을 국제법정에 세워서 수사와 처벌을 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들었다. 그 후 영구상설의 국제형사재판소를 창설하자는 논의가 반세기 이상 있어왔고 마침내 1990년대에 는 구 유고전범재판소와 르완다학살재판

세계은행보고서에 의하면 중규모의 개도국이 내전으로 인하여 입는 평균 피해액은 30년간 그 나라의 국민소득성장과 맞먹고 보통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20년이 걸린다고 한다. 이 경우 부당면책만 계속되면 이는 피해자 측의 복수심을 유발하여 끊임 없는 충돌의 원인이 되므로 확실한 책임추궁을 하여 일단 법의 지배의 닦는 것이 전쟁을 겪은 사회가 다시 빨리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회복하는 지름길이 된다.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은 회원국에만 미치므로 북한과 같은 비회원국에는 해당이 없으나 유엔안보리가 결의를 하면 비회원국이라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되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바로 비회원국인 북한의 감정을 국

개도국이 내전으로 인해 입는 평균 피해액

30년간 그 나라의 국민소득 성장과 맞먹어

회복에는 20년 이상 걸려

소라는 유엔 산하 임시형사법정이 설치되어 상당한 평화 확보의 실적을 올렸다.

이와 같은 논의와 선례를 바탕으로 로마규정이 채택되었고 2002년 7월 1일 드디어 헤이그에서 국제형사재판소가 문을 열었다. 그리하여 이 재판소는 유엔시스템과는 별도로 국제사회의 평화를 가장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위협하는 네 가지 극악무도한 범죄, 즉 전쟁범죄, 침략, 집단학살 그리고 반인도적 범죄의 수사와 처벌에 관한 관할권을 갖고 이를 저지른 수괴급 범죄자를 처단할 수 있게 되었다. 2011년에 출간된

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자는 논의가 꾸준히 대두되는 이유다. 다만 정치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회부가 불가능하므로 다른 대안을 찾고 있는 것이 국제사회의 현재 움직임이다.

우리가 국내외에서 운영하는 통상적 의미의 형사법원은 범인을 처벌하여 응보적 정의를 구현하던 그 임무가 종료되고 만다. 그러나 국제형사재판소는 범죄수괴 개인의 처벌이라는 기초적 형사정의만으로는 전쟁으로 피해를인 사회가 충돌과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수많은

전쟁피해자의 고통은 전연 개선되지 않는 점에 착안하여 로마규정에 두 가지 혁신적 방안을 도입했다. 첫째는 피해자가 독자적으로 형사절차에 참가하여 거의 당사자와 비슷한 수준의 각종 소송행위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소나마 그들의 한을 풀어주는 길을 열었다. 둘째로 국제형사재판소는 피해자를 위한 신탁기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그들을 구제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수많은 전쟁피해자들에게 날마다 직업훈련과 의료봉사는 기본이고, 공간피해자를 위한 지속적 심리상담, 어린이교육프로그램운영, 사지를 잃은 피해자에게 의수족의 공급, 평화교육, 생업장착을 위한 미소금융 등 다양한 구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취약한 피해자집단은 어린이와 부녀자들이다. 어린이들은 대부분 소년병으로 정신적, 신체적 상태가 온전치 못하고 부녀자들은 영유아가 딸린 젊은 과부들이 대부분이다. 피해자신탁기금은 이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유니세프와 같은 유엔 산하 각종 원조기관과 현장에서 협력하면서 이들을 돕는다.

바야흐로 국제형사정의는 이처럼 처벌을 통한 고전적인 응보적 정의에서 훨씬 더 나아가서 회복적 정의와 치유적 정의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단순히 극악무도한 범죄자의 처벌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 구제까지 해주는 인류역사상 최초의 법원이라는 점에서 국제형사재판소의 창설은 인류가 간직해온 오랫동안의 소망이 성취된 것이다. 따라서 국제형사재판소가 앞장서서 시도하고 있는 응보적 정의의 실현을 통한 부당면책의 종식은 물론 회복적이고도 치유적 정의로 과감하게 확대해나가는 이 숭고하고도 어려운 실험은 결코 실패해선 안된다. 그레야만 국제형사재판소는 유엔의 두가지 분쟁해결수단과 상호 보완하여 좀더 확대된 국제형사정의의 통한 인류의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보루가 될 것이다.

는 데 법이 기여할 수 있도록 나름의 법조문을 만들어 제시하기도 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현환(법학78-82한국공법학회 회장)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헌의 고려요소로서 △기존 헌법에 대한 진지하고 정확한 성찰과 이해 △현실적 개정 요구 △미래지향적 성격 등을 꼽으며, 성 총장의 발제문은 이를 빠짐없이 짚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성 총장이 제시한 이원정부제와 관련해 “대통령직선제가 쉽게 포기될 수 없는 가치임을 감안할 때 대통령과 의회 사이의 협치를 어떻게 제도화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내각 구성의 전권을 의회에 주고 대통령이 내각을 의결기구화하면 내각의 책임이 강화되고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부도 책임감 있게 정책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형(법학75-79) 모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개헌의 공론화 과정을 강조했다. “통보식으로 열리는 전국순회 공청회로는 부족하다. 전 국민이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거칠 수 있도록 ‘보텀 업(bottom up) 캠페인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 서둘러도 지방선거 일정을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인데 이미 시간이 많이 흐른 상황”이라며 염려하기도 했다.

청중으로 참석한 박한철(법학71-75·모교 법대 초빙교수) 전 헌법재판소장은 “촛불혁명이라고 이름붙이긴 했지만 최고권력자의 행태에 대한 시정요구였을 뿐 개헌 요구로까지 이어진 건 아니었다”며 “1987년 6월 항쟁 땀 대통령직선제 등 명확한 이유가 있었던 데 비해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와 국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제 문제를 헌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하는 고민이 중요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목 차

※ 본 회보에 게재된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회보에 게재된 취재기사 및 동문 글은 본 회보가 Copyright을 갖습니다.

- 남가주 동창회 신년하례 및 정기총회 성황리에 개최
- 제5회 서울대 국가정책포럼
- 기고: 국제형사 정의의 새로운 변화 송상현
- 기고: 실학사상과 AI 아카데미, 서정화 / 전문직사의 위기와 서울대인, 이음식
- 기고: 새시대 경제성장 이론, 정계훈 / 2018년 자본주의의 진로 백순
- 지부 소식: 남가주 동창회 2018년 정기이사회 개최
- 지부 소식: 남가주 문리대 동창회 신년회 / 이의경 (농대 72) 동문 동창회
- 지부 소식: 남가주 간호대 동창회 / 남가주 미대 동창회
- 지부 소식: 플로리다 동창회 백양희 / 이준행 특지 장학금 수여식 / 이상욱 문학상 수상
- 지부 소식: 서울대 글로벌인재 특별 전형 모집 설명회 / 뉴욕지역 서울음대 동문 2017 송년 음악회
- 기고: 인류의 나이는 사춘기, 최용완 / 자기 수명 결심하기, 이원영
- 기고: 米壽의 소망, 이용락
- 기고: 米壽의 소망, 이용락
- 기고: 전환기의 이민주회, 연봉원
- 기고: 초상화, 천양국
- 미국의 나의 발자취: 나의 평생을 바친 韓國半導體, 강기동

- 미국의 나의 발자취: 나의 평생을 바친 韓國半導體, 강기동
- 미국의 나의 발자취: 나의 평생을 바친 韓國半導體, 강기동
- 기고: 세계 7대 천함과 이순신 ‘거북선’의 재발견, 이내원
- 공트: 산속의 소녀, 이석호
- 연재 : 가발과 함께 걸어온 나의 86년 인생 (Part 7) 이준형
- 기고: 지난 12월 호 ‘예술은 구원인가?’ 기고를 읽고..., 이태삼
- 기고: 역강하면서도 서정적인 테너 프랑코 코렐리 (Franco Corelli), 한수웅
- 기고: 역강하면서도 서정적인 테너 프랑코 코렐리 (Franco Corelli), 한수웅
- 후원금 집계
- 동창회비 집계
- 동창회비 집계 및 후원금 납부 양식
- 미주 동문 엽소록
- 미주 동문 엽소록
- 제14대 미주 동창회 집행부 조직도, 2017 미주 지역 동창회 회장단 명단
- 광고, 종신이사회비
- 광고

p1으로부터



성주경 전임 회장, 강신용 신임 회장

는 다음과 같다. “임원들과 단과대 회장님들과 함께 행사준비를 의논하면서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들이 좋았습니다. 장학위원회 시행 세칙, 경조사 지급규정, 미주동창회 차기회장 출마 신청에 대한 사전조정(내규) 등을 만들어 정기이사회에 통과됨으로써 다음 동창회의 근간을 마련했습니다.



2017년 임원진에 공로장 수여

2018년 강신용 회장은 역대회장 중 가장 젊은 73학번이고 패기가 넘치니 우리 동창회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 넣어 줄 것입니다.” 이어 동창회기 전달식이 있었다. 다음은 최

용준(수의대 81) 신임 총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강신용 신임회장이 이임하는 성주경 회장에게 공로패를 증정하였다. 강신용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동창회 제1회 큰 잔치인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이 동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동문 한분 한분이 소속감을 느끼고 재미있는 동창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한 부탁은, 예약문화(RSPV), 시간 엄수, 동문연회비 납부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단대별 회장 소개

이어 단과대 회장단 소개가 있었고, 2018년



윤상래 미주동창회 회장

신임회장단 발표 및 인준으로 계속되었다. 다음 한귀희 수석부회장 인사가 있었다. “올 한 해 강신용 회장님을 도와 열심히 일하고 많이 배워서 내년에 역대 회장님들께서 해주셨던 동창회의 전통을 이어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최용준 총무국장의 2018년 사업계획 보고로 이어졌고 단체사진 촬영이 있는 후, 저녁식사를 하며 2017년도 행사사진 슬라이드쇼가 있었는데, 이는 홍선례(음대 70) 문화위원장이 1년 동안의 행사를 찍은 사진들이다. 다음 2부에서는 서울대 남가주 동문합창단이 “아리랑, 도라지” 등을 연주하였고, 해밀 국악팀이 민요, “사랑가, 정선 아리랑, 밀양아리랑” 등을 장고 반주에 맞춰 연주하였으며, “옹헤야”는 관객들과 함께 메기고 받는 유행형식으로, 3인의 창자가 앞소리를 부르며 관객이 후렴을 따라 부

리며 모두는 즐거운 분위기였다. 박선우 동문이 답례로 Puccini의 오페라 La Boheme에 나오는 아리아, “Quando men bo”를 불렀는데, 그 폭넓은 음량에 모두 감탄하였다.



Dancing Queen공연에서는 이상실(간호대 88) 동문이 수상하였다. 이어 복면가왕 대전이 있었고, 대상은 지창열(문리대 83) 동문의 “지중해”였고, 2등은 박승현(음대 85) 동문이 “Right Hand(Drake)”에 맞춰 춤을 추어 상을 받았다. 이어 경품추첨에서는 특등상인 한국왕복권 비행기표(성주경 2017 총동창회장, 강신용 신임회장, 한귀희 신임 수석부회장 제공)는 신정자(사대 63), 이명규(미대 73), 백옥자(음대 71) 동문 등이 추첨의 행운을 안게 되었다. 그 외 상임이사와 단과대회장들이 많은 상품을 기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동문들은 서로 악수를 주고 받으면서 새해의 복을 빌어 주며 신년회는 끝났다.



신임 임원진

[기사제공: 홍선례 편집위원]



남가주 동창회 2018년 정기이사회 개최 - 수석부회장 한귀희(미대 68) 동문 인준 -

지난 1월 11일 LA다운타운에 위치한 작가의 집에서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 2017년도 정기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유병원(상대 76) 총무국장의 사회로 시작되어 서치원(공대 69) 전 총동창회장의 선장으로 교가 제창이 있었다. 이어서 유병원 총무국장의 이사 정족수 확인과 성주경(상대 68) 총동창회장의 참석자 소개 및 인사말이 다음과 같이 있었다. “1년 동안 거의 매달 행사를 기획하여 실천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70, 80 학번들이 많이 참석하지 못한 점과 계획했던 장학사업을 못한 점입니다.” 이어 김병연(공대 68) 직전 총동창회장의 2017년 1월 19일 정

기이사회 의결사항 보고가 있었다. 다음 유병원 총무국장의 2017년 사업보고와 송두일(상대 84) 재무국장의 재무보고가 있었다. 이어 강신용(사대 73) 수석부회장이 2018년 사업계획 발표와 더불어 “RSVP를 잘 합니다. 시간 을 엄수합니다. 동문 회비를 열심히 납시다.”하고 이 세가지를 지켜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2018년 수석부회장(2019년도 총동창회장) 선출이 있었는데, 김병연 인선위원장(직전 총동창회장)이 수석부회장 후보 등록을 한 한귀희(미대 68) 후보에 대한 자격 심사 및 그동안의 동창회에 대한 기여도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한귀희 후보는 이

사회의 만장일치로 수석부회장으로 피선되었다. 한귀희 신임 수석부회장은 “미대 동창회에서 27년 만에 수석부회장에 당선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신용 총동창회장을 도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인사말을 했다. 다음 안건토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의되었다.

1. 회비-일반회비 인상: \$50을 \$100, 부결
2. 총동창회 부회장 인준-차기회장(수석부회장) 출마 신청에 대한 사전조정(내규)-초안
3. 추천된 선임이사의 인준
4. 단대 및 대학원별 선임이사 정수 결정-현행대로 동문 수의 5%
5. 회장추천에 따른 감사 2명-지창열(문리 83), 김규정(사대 77)
6. 경조사 지급규정-원안대로 결의



성주경 회장



한귀희 수석부회장

7. 장학위원회 세칙 초안-원안대로 결의
8. “서울대학교 남가주 동문 합창단”-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가? 명칭사용 가결
9. 미주동창회 차기회장(수석 부회장) 출마 신청에 대한 사전 조정(내규): 초안: 결의 통과, 미주총동창회장의 자격은 남가주총동창회의 회장의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10. 단과대학 명칭변경에 따른 단과대학 동창회 명칭 변경, 가정대—생과대(생물과학대학), 문리대—문리대로 사용(추후 단과대학에서 토의 결정)
11. 단대 협조미납을 관리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논의 안됨.

2018년 2월 3일 오후 4시 Oxford Palace Hotel에 있을 정기총회 및 신년회 안내가 있었고, 서울대 로고와 새겨진 Wine Glass Set을 이사회 기념 선물로 증정하며 이사회는 끝났다.

[기사제공: 홍선례 편집위원]

남가주 문리대 동창회 신년하례식

2018년도 남가주 문리대 (문리, 인문, 사회, 자연) 동문 신년하례식이 1월 13일 (토) 오후 3시에 LA의 Rotex Hotel에서 있었다. 6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는 이중호 동문 (중앙사 81; LA 중앙일보 Orange County 지국장)의 사회로 진행이 되었는데, 각자 자신의 삶을 함축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문들은 삶의 위험한 순간, 인생여정이 달라진 기로에서의 이야기 등 에피소드들을 나누기도 했다. 김충현 (물리 72) 전임 회장이 2015, 16에 봉사를 하고, 2017, 18에는 박제환 (영문 75) 동문이 회장을 맡고 있다.

이어서 점심을 나눈후, 2부 순서로 음대 김미자 (81) 동문이 준비한 해금 연주 (김아리랑과 영화 왕의 남자 OST; 이선희의 인연), 최명룡 (성악) 남가주 음대 회장의 독창이 이어졌다. 다음엔 남가주 문리대 신년 하례식의 전통에 따라 명강의를 듣는 순서로 Cal State Long Beach 경영학과 마케팅 담당인 송명국 (철학 90) 교수가 “Big Data와 Machine Learning에 대한 사회적 함의”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관악세대의 송교수의 강의는 문리대 동문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지난번에는 외교학과 출신의 이채진 교수가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의 외교전과 현안에 대해 강의를 해 주신바 있다. 문리대에는 특히 미국대학에서 교환을 잡은 교수진이 많아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회원들에게 좋은 강좌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의경 (농대 72) 동문 독창회



지난 11월 20일 PASADENA CITY COLLEGE WESTERBECK RECITAL HALL에서 이의경(농대 72) 동문의 독창회가 열렸다. 이의경 동문은 10년 여에 걸쳐 유명 소프라노들을 사한 뒤 PASADENA CITY COLLEGE에서 성악 과정을 마쳤다. 이날 “A Lifetime of Loving Music”을 주제로 열린 이 졸업 리사이틀에서 이의경 동문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레퍼토리로 열창하여 박수갈채를 받았다.

Reynaldo Hahn 작곡 “Si Mes Vers Avaient Des Ailes”, Albert Roussel 작곡 “Le Jardin Mouille”, Reinaldo Hahn 작곡 “A Chloris”, 그



예전에 3년간 회장을 맡아 봉사한 박정모 (사회 66) 동문은 이번 모임이 특히 인상적이었으며 좋은 감명을 받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남가주 문리대 동문의 신년 하례식은 문리대 모임 중 가장 많이 모이며, 동문간의 끈끈한 우정을 간직하고 있다.

[기사제공: 박제환 회장]



리고 Johannes Brahms 작곡의 “O Wusst’ Ich Doch Den Weg”, “Wenn Du Nur Zuewilen Lachelst”, “Wie Melodien Zieht Es Mir” 등과 Pierro Mascagni 작곡 “Ave Maria”, 그리고 “하니님의 은혜”, “내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리”, “님이 오시느니”, “그리운 금강산” 등으로 전공자 못지 않은 가창력을 보여 주었다. 서울대 농과대학을 졸업한 이의경 동문은 65세에 첫 독창회를 열면서, “제 나이가 62세 되던 해, 3년 전 PASADENA CITY COLLEGE에서 음악공부를 시작했어요. 공부하는 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어서 무거운 책가방이 버겁기는 했지만요.” 라고 말했다.

이번 독창회는 지도교수의 제안에서 시작되었는데, 학장 역시 그의 실력을 인정하여

허가했고, 한 학기에 한 명 만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 “어릴 적부터 음악을 좋아했어요. 그런 가정환경에서 자랐어요. 명절이나 크리스마스 때면 가족 음악회가 열릴 정도였으니까요. 부모님은 모두 찬양대에서 솔리스트로 봉사하셨고 친척 중에도 전문 뮤지션들이 여러 있었어요.”

이의경 동문은 정신여고 시절에는 합창단에서 활동했다. 음대에 가고 싶었지만 가정형편상 포기해야 했고 결혼 후에는 전업주부로 살았다. 그래도 미국으로 이주한 후, 노형진 선교사와 소프라노 황혜경 씨에게 계속 개인 레슨을 받았고 용기를 내어 3년 전 오디션을 통해 학교에 입학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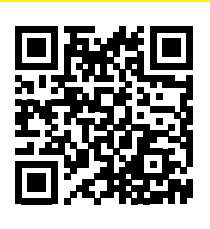
“정말 가족들의 지원이 없었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그동안 남편은 많은 용기와 배려를 해줬고 두 딸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죠. 이번 콘서트를 위해서도 큰 딸은 프로그램을 짜주고 작은 딸은 프로그램을 디자인해줬어요. 다음 목표는 미국 콰이어의 단원이 되는 거예요. 이번 콘서트가 끝나고 나면 지원서를 내보려고 해요.” 어렵게 적 کم을 잃지 않고 뒤늦게 성악공부를 시작하여 65세에 리사이틀을 열어 성공적으로 끝낸 이의경 동문의 열의에 관중들은 모두 감격하여 찬사를 보냈다.

[기사제공: 홍선례 편집위원]

동창회비 온라인 납부 방법

다음의 QR code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링크된 곳으로 이동해서서
‘동창회비 납부’를 누르고,
해당 항목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남가주 간호대 동창회 정기총회 및 신년회

- 새해도 동문 모두 더욱 행복하고 번영하기를 기원 -

지난 1월 20일 서울대학교 남가주 간호대학 동창회(회장 이호진, 간호대 74)가 Oxford Palace Hotel에서 정기총회 및 신년회를 개최하였다. 50여명의 동문들이 모인 이 행사는 양수진(간호대 80) 총무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교가제창과 회장인사로 이어졌다. 2018년에도 연임하게 된 이호진 회장은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동창회에서 전, 현, 차기회장님과 문화위원장이 참석해 주시어 자리를 빛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7년 한 해의 모든 행사를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와 격려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총동창회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간호대 동문간의

단독한 관계와 총동창회 동문간의 관계를 계속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올해는 작년부터 추진해 오던 주소록 발간을 마무리하여서 내년 신년회 때 배부하겠습니다. 주소록 발간에 동문들과 관심 있으신 분들의 광고를 올려서 fund raise의 효과도 올리고자 합니다. 시대적으로 점점 줄어가는 동문들의 참여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동문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항상 적극적인 참여로 저희 동창회를 밀어 주시는 69학번 동문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격려와 참석으로 동창회를 이끌어 주시는 대선배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양수진 총무의 사업보고가 있었고, 이



호진 회장의 회계보고가 있었다. 다음 양수진 총무의 참석자 소개가 있었고, 초대순님으로는 성주경(상대 68) 총동창회장, 강신용(사대 73) 수석부회장, 김병연(공대 68) 전 총동창회장, 홍선례(음대 70) 문화위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어 단체사진 촬영이 있었고 점심식사에 이어 제2부 순서로 진행되었다. 사회는 노선호씨가 맡았는데, 김수향(간호대 68) 전 회장의 첼로 독주, Dvorak 작곡 “Humoresque”를 박연숙(간호대 87) 동문의 피아노 반주로 연주하였는데, 4년간 숙련된 솜씨로 능란한 연주를 보여주어 모두를 감



탄케 하였다. 다음 제스처게임, “몸으로말해요.”에서는 동물이름 맞추기, 운동경기 이름 맞추기 등이었고, 동문들의 우스꽝스런 몸놀림에 장내는 웃음바다가 되었다. 다음 복면가왕 순서로 진행되었는데, “호랑이 아니고 고양이”로 분장한 최경복(간호대 69) 동문이 “만남”을 불러1등을 차지했고, “삼바의 여왕”으로 분장한 손선행(간호대 69) 동문이 “댄서의순정”을 불러 2등을 차지했다. 가면을 쓰고 열창하는 출연자들에게, 모두들 폭소하며 큰 박수를 보냈다. 동문들은 흥겨운 음악에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푸짐한 선물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다.

[기사제공: 홍선례 편집위원]

남가주 미대 동창회 신년회 및 총회

뉴욕지역 미대 동창회와 교류전 추진



대한 자세한 토의가 이어져 차기회장을 맡게된 미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동문들의 열띤 토의가 계속되었다. “총동창회 신년 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을 희망한 동문이 예년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이 수석부회장을 맡게된 미대의 위상이 높아진 증표라 할 수 있겠다. 성주경 총동창회 회장님의 축하 말씀과 격려가 있었고 김병연 상임이사님의 1인당 총동창회 후원금 기부 1위(전



미대 남가주 동문회(회장 한귀희)는 지난 1월 20일 토요일, “Dream Wells Gallery”(770 S. Irolo St. Los Angeles CA 90005)에서 신년회 및 총회를 했다. 김경애(83), 김구자(61), 김옥권(76), 김윤진(67), 김화자(60), 박수삼(59), 백혜란(70), 서동현(67), 손남수(60), 신정연(61), 신희정(73), 장원경(73), 한귀희(68), 한석란(71), 현혜명(61)과 성주경(상대 68) 남가주 총동창회장, 김병연(공대 68) 남가주 총동창회 상임이사 등 총 17명이 모인 신년회는 27년 만에 미대가 수석부회장(한귀희 68)을 맡은 축하 잔치를 겸해 시종일

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이어졌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남가주 동문회(SNUASFA)”로 총동창회가 결정한 공식 명칭을 사용할 것을 결정했으며, 작년에 이어 연임하는 신임 회장단 - 회장: 한귀희(68), 총무: 김경애(83) 부회장: 백혜란(70), 고문: 박영국(66)의 소개가 있었다. 이어서 선임이사로 김구자(61), 김경애(83), 김옥권(76), 김화자(60), 백혜란(70), 서동현(67), 장원경(73), 한석란(71) 등 8명이 선출되었다. 2018년의 중요 행사로 “NY 지역 동창회와의 동문 교류전”이 큰 이슈로 다뤄졌으며, 총동창회의 여러 행사 참여에

플로리다 동창회 골프 모임



2017년 12월 28일 Ft. Lauderdale 에 있는 옛 PGA golf course, Inverrary Country Club 에서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조촐하게 6명의 동문이 참석해서, 12월의 날씨임에도 한국의 가을 날씨처럼 청명하고 시원한 날씨속에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선배로서의 아름다운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모두가 열심히 했지만, 멀리 Ohio에서 오신 이치훈(의대 69) 동문이 우승해서 기념 Trophy를 받았다. 골프후, 계속된 송년 모임으로 가까운 한인 식당에서 만나 골프에 참석하신 동문들과 그리고 선우건영(의대 57) 부부, 정치

영(법대 76) 동문이 참석해서, 비록 적은 숫자지만, 가족같은 분위기로, Medical Issues, 정치문제, 종교문제 등 여러가지 2017년 한 해동안 주마등같이 흘러간 사건 등, 의견을 나누면서, 보내는 아쉬움과 맞이하는 설렘으로 아름다운 모임을 가졌다. 그리고 2018년 Florida 서울대 동문회 회장으로 정치영 동문을 선출했다. 참석동문: 김중권(의대 63), 윤기향(법대 65), 계동휘(치대 66), 조덕환(의대 67), 이치훈(의대 69), 조동건(공대 69)

[기사제공: 조동건]

백양희 (경영) 동문, 라엘 최고 운영 책임자

디즈니 디렉터서 공동창업자로



“모교를 다닐 때 똑똑한 친구들 정말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만나보면 그 우수한 인재들이 가정을 꾸리고 일상을 지키는 데만 급급한 것 같아요. 점점 꿈도 없 어지고... 젊은 동문들이 현재에 안주하기 보단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면서 더 풍부하게 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듣기엔 좋지만 실천하기 쉽지 않은 ‘도전’이라는 말, 요즘 현실을 생각하면 입 밖으로 내기에도 쑥스러운 ‘꿈’이라는 말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여성 동문이 있다. 디즈니 영화사의 해외배급팀 디렉터로 근무하다. 지난해 하반기 라엘(Rael)의 공동창업자로 변신한 백양희(경영98-02) 최고운영책임자가 그 주인공. 또래 동문들에게 전한 말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그를 2017년 마지막 날 용인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라엘은 유기농 여성용품 브랜드입니다.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아마존에서 동종제품 최고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죠. 기능성이 뛰어난

한국 기술력과 텍사스 산 면을 접목해 출시한 생리용품으로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 시장에 집중하고 있지만 얼마 전 유럽에 진출했고, 아시아권에도 판로를 개척해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시킬 계획이에요.” 백 동문은 자칭 ‘하드코어 엔터테인먼트 추종자’다. 모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 MBA를 거쳐 세계 최고의 컨설팅 업체로 손꼽히는 보스턴컨설팅그룹 LA지사에 입사했지만, 고액연봉도 뿌리치고 처우는 그보다 못한 디즈니 영화사로 이직했다. 유년시절엔 성악가와 발레리나가 꿈이었고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빠짐없이 관람할 정도로 엔터테인먼트가 주는 흥분과 짜릿함에 매료돼 있었다. 그런 그가 7년 넘게 몸담아 오던 글로벌 영화사를 나와 전혀 다른 업종의 스타트업에 뛰어들었다니 적잖이 당황스러웠다.

“처음엔 저도 많이 생소했어요. 원하던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여성용품에 특별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공동창업자인 아네스 안씨가 끈질기게 동업 제의를 해왔고 또 다른 공동창업자인 원빈나 씨와도 성격이나 특장점들이 서로 정말 잘 맞았습니다. 공부할수록 유기농 여성용품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아네스 안 씨의 창의적 영감과 원빈나 씨의 디자인제품개발, 저의 마케팅배급 및 유통 스킬이 불러일으키는 시너지가 이거 되겠다” 하는 확신을 쫓았다.

디즈니는 한 번 입사하면 20년 넘게 근속하는 직원이 수도룩하다. 제작배급하는 영화도

'이준행 특지 장학금' 수여식



모국 총동창회 이준행 (공대 48) 부회장의 '이준행 특지 장학금' 수여식과 송년의 밤이 지난 12월 28일 뉴욕 근교 맨해튼 필리스트 중국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7명의 학생에게 각각 2,500 달러의 장학금을 수여되었다. 5명의 대학 재학생과 2명의 석사과정 학생은 한 · 중 · 일 · 영 · 독

어에 능통해야만 하는 까다로운 관문을 통과했다. 장학생인 김현우, 조셉 패도, 시리샤 메스키, 로베카 패도, 장미나, 케서린 애린 김, 다니엘 정에게 각 2,500 달러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준이 장학재단은 매년 연말에 7명의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기사제공: 송용길]

이상묵(공대 59) 동문 2018 고원 문학상 수상



미주 한인 문단의 '고원문학상' 수상자로 캐나다 토론토에 거주하는 이상묵(공대 59) 동문이 선정됐다. 시 창작과 후진 양성에 일생을 바친 고 고원 시인의 업적을 기려 제정된 '고원문학상' 2018년 1월 제7회 수상자로 선정된 이상묵 시인은 시집 '링컨생가와 백

두산들쪽발'으로 올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상묵 동문은 캐나다로 이주해 기계설계 분야에 종사했다. 이상묵 동문은 40 중반의 어느 날 문득 이민자의 삶에 대한 성찰로 처녀시 '절구를 생각하며'를 쓰게 되었는데 이 시를 비롯한 9편의 시가 1988년 '문학과 비평' 가을호에 김광규 시인의 추천으로 등단, 시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후 '창작과 비평' '문학사상' '현대 시' '작가 세계'등 유수 문예지외 '미주문학' '문학세계' '외지' 등 북미주 문예지에 다수의 작품을 발표하며 꾸준히 창작활동을 이어왔다. 캐나다 한인문인협회장을 역임하고 문예교실을 개설하여 강의와 시 창작을 병행하고 있다. 이상묵 동문의 시작품 '나목'은 서울의 사당역, 남태령역, 가산디지털단지역에 게시돼 있다. 한편, 제7회 '고원문학상' 시상식은 고원 시인의 10주기가 되는 2018년 1월 개최되었으며 고원문학상 상금은 3,000 달러이다. (출처: 미주한국일보)

그렇지만 회사 자체도 가족중심적 성격이 강해 야근은 물론 휴일근무도 거의 없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장려하는 것이다. 또한 세계 영화시장을 주름잡을 만큼 높은 명성과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미키 마우스, 도널드 덕, 곰돌이 푸 등 지구 반대편 한국의 아이들도 다 아는 유명 캐릭터의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현대 미국의 전설로 불리는 스타워즈 시리즈와 한국에서도 팬층이 두터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판권을 보유하고 있다. “디즈니는 영화계 갑 중의 갑이어서 배급을 맡아 일하는 제가 아쉬운 소리 할 일도, 들을 일도 없었습니다. 즐기며 일할 수 있는 좋은 직장이었죠. 그러나 거대 조직 안에 갇혀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시스템 안에서 역할이 한정되고 의사결정도 느려서 제가 큰 변화를 이끌어야 할 여지는 적었어요. 반면 스타트업은 의사결정도 빠르고 그게 반영된 결과물이 바로 눈에 보

이니까 경영인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더 빨리,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디즈니에 죽으면 편하겠지만 환경이 급변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리터십은 여기 라엘에서 더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해외배급팀 디렉터로 일하면서 세계 각국의 시장 환경과 소비심리를 분석해온 백 동문은 라엘이 미국 시장에서 신뢰 받는 브랜드로 정착하는 데는 물론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어려서부터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해 LA 동문 록밴드 ‘컬리 프라이스’의 보컬로 활약 중이며, 세계 곳곳을 여행하는 등 화려한 싱글라이프를 즐기고 있다. 미주중앙일보에 실린 인터뷰 덕분에 아네스 안을 만나게 됐다는 백양희 동문. 본지에 실린 인터뷰 또한 그에게 좋은 인연을 찾아주길 기대해본다. (출처: 총동창회보, 나경태 기자)

서울대 글로벌인재 특별 전형 모집 설명회

버지니아, 뉴저지



서울대 글로벌 인재 특별 전형 모집 설명회 가 2월 1일 (목) 버지니아(비엔나 소재 한미 과학 협력센터 (KUSCO)) 와 2월 3일 (금)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열려 글로벌 인재 특별 전형 등을 소개했다. 작년에 서부지역에서 설명회를 가진 후 동부지역에서 2년만에 열린 설명회에는 2년 전보다 많은 수의 한인 부모와 학생들이 참여하여 본교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거쳐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돕고자 입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지원자격은 글로벌인재 특별전형 I 의 경우 본인, 부모 모두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 하 하고 글로벌인재 특별전형 II는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전 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자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 홈페이지(admissionsnu.ack)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버지니아 설명회에는 동창회 임원에게 몇 가지 도움 요청이 와서 오인한 전 미주동창 회장, 안선미 워싱턴 DC 동창회장, 정세근 부회장, 이우진 섭외, 한정민 서기가 참석했다. 뉴저지 설명회에는 이진구 전 미주동창 회장, 신용남 미주동창회 차기 회장, 손대홍 뉴욕지역 동창회 차기 회장, 허유선 특별사 업국장이 방문했다.

[기사제공: DC, 한정민/ 뉴저지, 허유선]

뉴욕지역 서울음대 동문 2017 송년 음악회 개최



SNUAA Brain Network Workshop

새로운 기술의 도전

2018년 3월 31일 (토)

MIT Stata Center
Cambridge, MA

주최: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후원: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하버드대학교 한국학생회

MIT 한국학생회

1. 주제: 새로운 기술의 도전

스팀 엔진이 1700년 중반에 산업혁명을 일으켰다면 반도체는 1900년 후반부터 컴퓨터 뿐만 아니라 인터넷 기업을 일으킨 원동력이다. 비트코인으로 잘 알려진 블록체인은 미래의 반도체와 인터넷 기술에 비유되는 신기술로 그 전망이 주목된다. 반도체를 가능하게 한 CMOS (Complementary Metal-Oxide Semiconductor) 기술을 개발하신 강기동 박사, 자율 운전 개발자 이주훈, 그리고 블록체인 협회 김진화 대표와 대회의 장을 마련한다.

2. 프로그램

2:00-3:00	강기동: 반도체 기술의 산업화 경험
3:00-4:00	이주훈: 자율 운전의 미래
4:00-5:15	김진화: 암호 화폐와 블록체인의 미래
5:30 -	buffet dinner

3. 연사



▲ 강기동: 한국 반도체의 태동

새로운 반도체 기술인 CMOS 기술을 개발하여 그 기술을 한국에 들여와 현재의 상성의 모태 역할을 했다. 새 반도체 기술을 상품화, 기업화하는 과정과 그 당시의 미래 산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되돌아 본다.



▲ 이주훈: 자율 운전의 미래

삼성을 거쳐 현재 Nvidia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으면서 자율 자동차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 김진화: 암호 화폐와 블록 체인의 미래

2013년 한국 최초의 암호 화폐 거래소 '코빗'을 공동 창업했으며, 지금은 암호 화폐 거래소, 금융기관, 지자체 등이 참여한 한국블록체인협회 디렉터를 맡아 정부기관, 국회, 금융기관 등에 암호 화폐 가능성과 미래 가치 등을 교육 한다. 2013년 암호 화폐 기술을 소개하는 국내 최초 단행본 '넥스트머니 비트코인을 출판했다.

지난 12월 29일 뉴욕 Bayside 소재 KCC 회관에서 뉴욕 서울대 음대 동문 2017년 송년 음악회를 개최했다. 수준 높은 음악으로 추운 날씨에도 음악회를 찾았은 관객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프로그램으로는 오페라 '박쥐, 안드레아 체니에, 리골렛토, 피가로의 결혼, 후궁 탈출, 라보엠, 세빌리아' 등에 나오는 주요 아리아와 프랑스가곡(드뷔시, 포레), 한국 가곡 '내 마음의 강물, 눈' 등을 솔로곡으로 연주했

고, 더블베이스 솔로곡 Tarantella - Giovanni Bottesin, 라보엠의 이중창, 피가로의 결혼 이중창 및 중창 '사랑이 예 오셨네, 항수, 우정의 노래' 순서로 공연되었다. 특별 순서로 롱아일랜드 어린이 합창단이 맑고 고운 소리로 연주회의 분위기를 무르익게 만들었다. 뉴욕지역 골든 클립 회원과 동문이 많이 참석하여 후원해 주셨고, 이번 연주를 시작으로 수준 높은 음악을 많이 지역 한인사회에 전달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다.



최용완 (공대 57)

인류의 나이는 사춘기

미리 앞을 보고 준비한 사람을 이길 재간은 없다. 어떻게 앞에 다가오는 시공간을 미리 보고 살 수 있을까. 고등동물의 뇌 앞에는 반듯이 눈이 있다. 그들은 모두 앞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앞을 보고 살기에 밝고 가는 발등은 잘 보지만 조금 멀어지면 보이지 않는다. 다가오는 시간을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하지만 지난 발자국의 기억에 비추어 상상으로 예견할 수 있다. 100년 후에 현존 인류의 미래를 볼 수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미래과학 전문가 맥스 브룩만(MAX BROCKMAN)은 “미래를 알고 싶으면 점쟁이나 굿쟁이 혹은 예언자를 찾으려하지 말고 미래를 생각하는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을 만나 이야기 하라고 한다. 여러 사람이 서로의 머릿속에 거울을 비춰보면 인간, 자연, 과학이 하나로 연관된 미래를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사람의 지능을 능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금은 사람이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만들지만 머지않아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때가 오면 견장을 수 없는 사건들이 터져 나온다고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은 걱정하고 있다.

내일이나 내년을 예측하는 신문기사들을 보면 언제나 작년의 예를 들어 최근의 경향에 따라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지만 50년

후에 다음세대의 미래를 추측하여 들면 상상의 세계가 날개를 펴고 날아다닌다. 수 백만 년 전에 현존인류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나 성장해온 과정을 관찰하면 한사람의 생애와 유사한 과정임을 볼 수 있다. 지금 인류의 나이는 한사람의 인생에 몇 살의 나이일까.

현존인류는 120,000년 전쯤에 어린 아이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나이에 아프리카를 떠나 해 뜨는 동쪽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다고 혈연학자들은 DNA의 기록을 보고 말한다. 음식을 구할 수 있는 바닷길 따라 동남아세아의 안식처에 이르렀을 때 정착생활을 시작하며 언어가 발달하는 나이에 이르렀다고 언어학자들은 말한다. 계속하여 복잡하여 동아세아에 이르렀을 때 사계절 기후의 겨울을 맞아 처음으로 자연에 도전하는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어머니의 젖 줄기에 의지해온 아기가 자기 음식을 찾아먹기 시작하는 나이가 되었다고 본다. 어머니의 품처럼 자연의 기후에 의존하던 아이가 온돌바닥에 불을 피워 겨울동안 생존하는 소년의 모습으로 성장하였다.

멀리서 바위를 끌어와 조상의 무덤 위에 고인돌을 세우는 농사짓는 마을의 유적은 한 반도 주위에 4만 여개의 유적을 남겼다. 나머지 4만 여개의 유적이 유라시아 대륙의

[진맥 세상]

자기 수명 결심하기



이원영 (인문 81)

결심을 하는 계절이다. 건강을 위하여, 돈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여러 이유들이 결심의 배경이 된다. 아마도 새해 첫날을 기해 남은 담배와 라이터를 쓰레기통에 집어 던진 사람들, 무척 많았을 것이다. 대부분의 결심들은 1년이 되기 전에 성공과 실패의 가닥이 잡힌다. 성공하면 스스로에게 큰 자존감을 주겠지만 실패하면 자괴심도 돈다. 결심은 성공하는 예보다는 깨지는 게 더반사다. 그래서 후회하고 또다시 결심하고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데 이런 건 어떨까. 결심하는 것 자체가 흐트러지고, 1년 안에 금세 실패와 성공의 판가름이 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성공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결심 말이다.

그는 80살까지는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그 이후는 삶의 마무리를 잘 해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다가 102세가 된 이종진이라는 분과 골프를 함께 친 사건(?) 이

해변길 따라 영국의 스톤헨즈에 이른다. 2만년 전에 유럽의 빙하기에 사람이 살지 못하는 환경에도 해변생활에 익숙한 동아시아의 농사짓는 마을은 이미 스페인이나 프랑스의 해변에 거주하며 소와 말을 그러놓은 라스코 벽화를 볼 수 있다. 그때 인류의 나이는 장난감 놀기 좋아하는 나이 4~5살 아이였다.

동아시아의 석탄불에 그릇을 구어 만드는 유적은 1만년 전에 나타나고 동아세아 농민이 서남아세아 우르지역에 이르러 사마리안 문화를 이루었음은 5천년 전에 나타난다. 동아세아 석탄불에서 금속 무기와 도구를 찾아내며 인류생활에 혁명적인 변화를 만주 요하문명에서 시작하여 인류문명의 첫 출발인 홍산문화를 1만년 전에 이루었다. 고조선(동이혼족),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로 성장하는 동안 농사짓는 동아세아 문화는 중미의 마야, 아스텍 문화로 전해지고 서남아세아의 사마리안 문화와 지중해 지역의 이집트 문화로 전해지며 육체적 정신적 성장을 이어갔다, 동아세아의 도교는 인도에 이르러 불교가 시작하고 600년이 지나서 서남아 기독교가 성립하고 다시 600년 후에 회교도가 성립한다. 인류의 나이는 지성적으로 성숙한 10살 나이였다.

유럽대륙이 2만 년 전부터 빙하기에서 풀려나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비로소 백인종이 나타난다. 동아세아에서 시작한 인류의 문화, 문명, 종교는 서남아세아를 통로로 유럽에 이르고 고조선 동이혼족은 비단길을 열어 유럽에 도달하였다. 옛 로마를 허물고 로마신생제국이 다시 일어나는 과정을 돕는다. 유럽의 암흑시대에 동아세아의 칭기즈칸이 유럽은 정복하고 세계제국을 세운 후부터 유럽의 백인들은 비로소 세계에 눈을 뗐다. 마르크 폴로의 기록에서처럼 동아세아 문화를 배워 문예부흥, 종교개혁, 사업혁명으로 인류의 현대문명이 성

숙하여 인류는 지성적으로 성장하였다. 해가지지 않는 대영제국의 기세는 미국이 1차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어 인류는 오늘 의 역사에 이르렀다.

동아세아에서 지성적으로 성숙한 나이를 거친 현존인류는 성장하여 몽골의 칭기즈칸 제국을 세우고 유럽의 백인종을 암흑시대에서 깨웠다. 지구를 한 바퀴 돌아 미국을 거쳐 다시 동아세아에 돌아오는 사춘기의 나이에 이르렀다, 사춘기 나이의 개성은 지금까지 잘 의지하며 살아온 부모에게 반항하듯 신에게 “신은 죽었다.”라고 반항한다, 식욕이 왕성하여 온 지구 표면은 유기물질 생산지가 되었다. 사춘기 육체적 성장은 인구폭발의 특성을 보이고 왕성한 감정은 폭력으로 전쟁을 멈추지 못한다. 그러는 동안에 세계의 정치와 경제력이 인류문화와 문명의 고향인 동아세아에 다시 자리 잡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

사춘기의 생식기능은 다음세대 아기를 출산하는 능력을 갖추었다, 시험관 아기의 생명력이 로봇의 체구에 결합되고 인공지능이 아기의 뇌에 주입되면 다음세대의 인류가 태어난다. 사춘기 나이에 아이를 기르기 위한 내조와 외조를 형성하는 가정이 이루어지고 현존인류는 본능적으로 정성을 다해 다음세대를 기르는 가정생활에 몰입하는 평화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상상을 할 수 있다.

지구는 오염이 심각하여 현존인류의 생활은 차츰 어려워지고 생명의 시한이 없는 다음세대는 지구를 탈출하여 우주의 어느 곳에 복음자리를 찾을 채비를 하는 때가 온다. 인공위성이 달과 화성에 이르고 우주시대를 예약하는 현존인류는 다음세대를 길러 보낼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상이 100년 후에 현존인류의 미래를 보는 눈이다.

장수시대가 도래한 것인데 그걸로 치면 미래의 120세는 지금이 84세에 해당하는 셈이니 얼추 맞아 떨어진다.

산은 높이 올라갈수록 시야가 넓어지는 법이다. 마찬가지로 수명도 소극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도적으로 설정하면 앞으로 해야할 일의 종류와 범위도 극적으로 달라질 것 같다.

이승헌 원장은 수명을 80정도로 생각했을 때는 단기간의 계획에 치중하고 중장기적인 비전을 품지 못했지만 120세까지 살기로 결심한 다음에는 뉴질랜드 어스 빌리지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것 등 비전과 꿈의 확장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수명에 대한 생각만 바꾼 것 뿐인데 그것이 30년은 더 젊어진 것 같은 회춘 효과를 가져다주었다고 한다.

꼭 120살까지 설정할 필요는 없겠다. 다만 건강관리만 잘 하면 100세 시대는 현실이 된 시대다.

몇살까지 살 것인가 결심하는 것만으로도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있음을 자각하고 보다 생산적인 삶을 계획하지 않을까.

미주 중앙일보 논설실장 한의학 박사



나의 평생을 바친
韓國半導體

姜起東 강기동
(공대 53)

1934년 12월 9일 咸南 咸興 生 (本籍: 廣南 金海)
京畿高等學校 1953년卒(49回) 서울대 工科大学 電氣工學科 1957年卒 (11回)
The Ohio State University, Columbus Ohio M. Sc. and Ph. D. 1962
Motorola Inc. Semiconductor Products Division, Phoenix Arizona 1962-1969
Stewart Warner Micro-Electronics Inc., Sunnyvale California 1969-1972
Integrated Circuits International, Inc. (ICII) 設立, Sunnyvale California 1972-1976
韓國半導體株式會社 (現 三星半導體) 設立, 京畿道 富川市 1972-1976
KDK Electronics, Inc. 設立, Sunnyvale California – Reno Nevada 1977-2011
나의 計劃으로 建設된 半導體 工場 1973-1983

1. 韓國半導體(주) 京畿道 富川(現 三星)
2. 源進電子-京畿道 龍仁(三星이 買入)
3. 現代電子-京畿道 利川(現 Hynix)
4. MEC(現代電子 Santa Clara, California 半導體 工場)

한국 반도체 공업사에서 강기동 박사의 존재를 빼 놓을 수 없다. 그는 1960년대 중반부터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 다섯개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그 가운데 창립 사장을 맡아 한국반도체공업 주식회사와 원전전자 공장을 지어 현재의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의 토대가 되었다. 또한 당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요청으로 현대반도체(현 SK 하이닉스) 이전 공장을 짓고 생산

설비를 갖췄다. 현재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세계 1, 2위 반도체 메모리 업체로 이들 두 회사 शे어를 합하면 세계 D램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이처럼 막강한 반도체 산업이 강 박사의 머리와 가슴, 손끝에서 비롯됐다.

외면받은 반도체 개척자

2004년 12월 매가 D램 시대를 구가하며 반

도체로 세계적 기업이 된 삼성전자가 기흥 반도체 단지에서 '삼성반도체 사업 30년' 자축 행사를 요란하게 벌였다. 이 자리엔 이건희 회장, 홍라희 여사(이 회장 부인) 그리고 그룹 주력 회사 CEO들이 대부분 참석했다. 그럴 만도 했다. 2000년 들어 서며 IT 불황이 시작되면서 다른 기업들이 모두 고전하던 때에 삼성은 반도체 덕에 대폭 흑자를 내고 있고, 향후 전망도 밝았으니 구세주가 될 만

했다. 30년 전 이 때는 제1차 오일 쇼크로 공장 준공 후, 회사를 넘기게 된 한국반도체 공업(KSI)을 인수한 시점이다. 이 회사를 창립, 한국 최초 반도체 칩을 그것도 세계 4번째로 LS(대규모 집적 회로) 칩을 생산해 낸 강기동 사장(공학박사)의 얘기는 쑥 빠지고 삼성그룹이 어느날 갑자기 반도체 산업과 기술을 창조한 것처럼 대대적으로 PR을 했다. (출처: The New Media, 2017 04)

西紀1974年10月6日 日曜日 (陰曆 8月21日 庚辰)

半導体분야 支援강화

商工部 原資材개발로 稼得率제고

웨이퍼工場 준공

韓半導體株式會社 富川工場 稼働開始

韓半導體株式會社 富川工場 稼働開始

2. 最初로 3인치 웨이퍼 設備 갖춰

1973년 8월부터 본격적인 회사 설립 준비작업이 착수되었으나 국내 최초의 웨이퍼 가공사업에 대한 정부의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1974년이 되어 사아 비로소 회사설립에 대한 政府認可를 얻게 되었다.

당시 정부에서는 반도체산업을 단순 조립생산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웨이퍼 가공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관계자들의 끈적전 설득으로 차츰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1974년 1월26일 설립된 韓國半導體(株)는 국내 KEMCO의 자본부자 50만弗, 美現地法人 ICII의 설비부자 50만弗 등 총 1백만弗의 자본금으로 출발하였다. 이 자본금은 1975년 9월 최초의 製品出荷가 이루어질 때까지 주로 施設投資에 사용되었다.

한편, 회사 설립작업과 병행하여 공장건설도 着手되었다. 1973년 10월7일 京畿道 金浦郡 善洞里의 空터 3천7백88평에 건평 5백61.8평의 초현대식 웨이퍼 가공생산공장의 가공식이 있었다.

설계에서부터 내부공사에 이르기까지 姜起東박사의 철저한 기술지도 밑에 국내에서 최초로 웨이퍼 가공생산공장을 건설하여 국내 반도체 産業史에 新紀元을 이룩한다는 자부심도 있었으나 공장건설의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겪어야 하는 공사 담당자들의 고충은 이루말할 수가 없었다. 여기에도 공장건설에 대한 정부와 기존 반도체 조립업체의 이해부족까지 겹쳐 참으로 힘든 작업의 연속이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건설공사는 당초계획에서 한치의 차질도 없이 이루어져 공사개시 6개월만인 1974년 4월 건물 內·外部工事を 완성하였고 정비도입과 설치를 거쳐 이해 10월7일 마침내 '공장 준공식'을 갖기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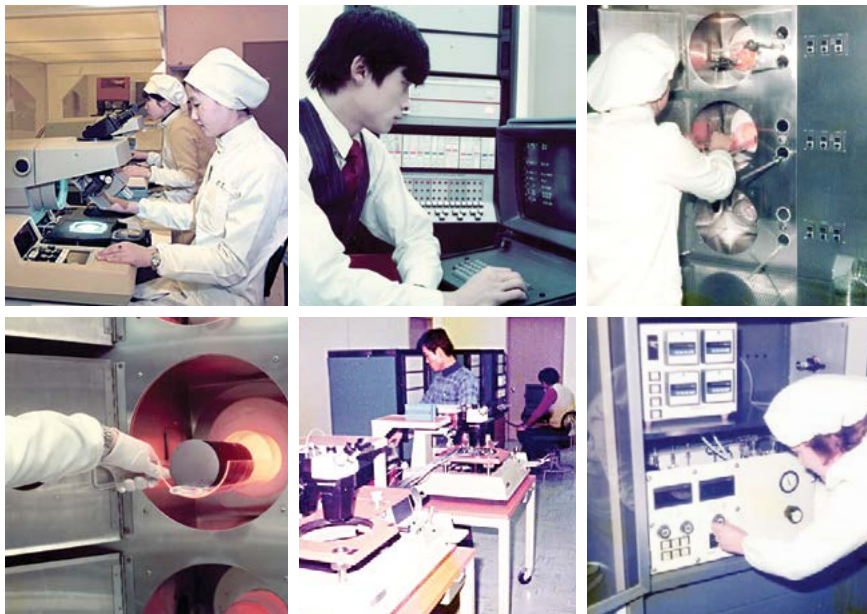
이 공장은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工費의 3분의 1만으로 완공되었을 뿐만 아니라 20만弗짜리 Ion Implanter 등 最先端의 3인치 웨이퍼 가공생산설비까지 갖추어 기존의 2인치 웨이퍼가공생산설비를 가진 선전 반도체 생산업체들을 놀라게 하였다.

삼성 반도체통신 10년사 1987년2월15일 발행 -Page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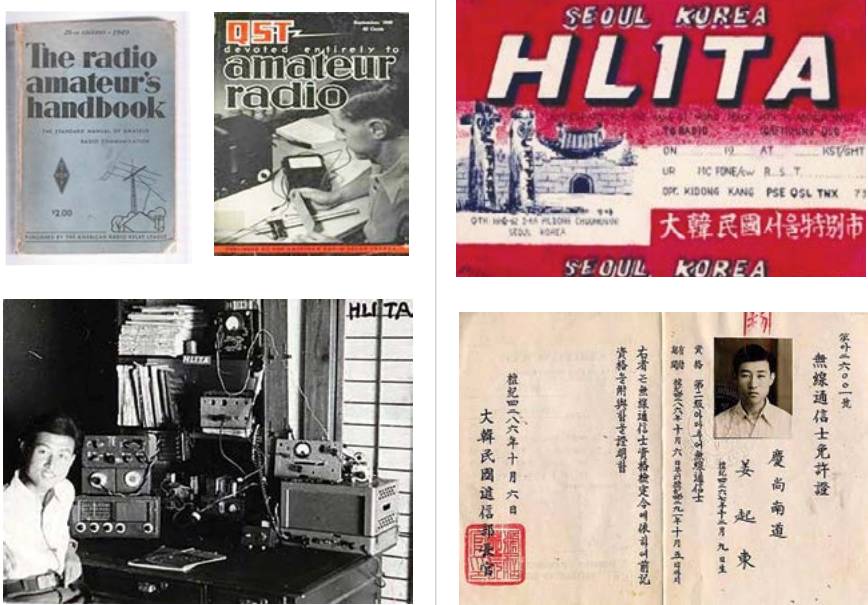


아마추어 무선연맹(KARL)의 인연으로 만난 김규한 (위 사진 왼쪽) KEMKO 사장은 한국 반도체 공장 설립을 위해 국내외의 재산을 모두 투자하였다. 필자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다. 1973년 한국에 반도체 공장이 생기고, CMOS-LSI 제품 생산이 크게 성공하여 한국의 반도체 역사가 시작되었다. 오른쪽 사진들은 당시 최첨단 3" 웨이

퍼이다. 이 생산 라인에서 훗날 64K DRAM MEMORY 개발 및 생산 성공의 기초 및 기반 기술이 현대와 경쟁에서 한 발 앞서 갈 수 있는 핵심 기술과 경험 있는 인력들이 양성되었다. 1978년 삼성이 한국반도체(주)와 미국에 1972년에 설립한 IC(강기동 지분 50%)를 100% 인수하고 상호를 삼성반도체(현 삼성전자)로 바꾸게 되었다.



한국 반도체 기술 습득 - 6.25 때 김해에서 시작



6.25 때, 피난은 경남 김해 할아버지 댁으로 갔다. 김해 비행장 옆인데, 24시간 미 공병대의 비행장 확장작업이 한창이었다. 미군 쓰레기 더미에서 QST Amateur Radio 통신 관련 잡지를 발견했다. 이후, 무선통신을 알게 되면서 Amateur Radio에 집착하게 되었다. 서울로 돌아와 체신부를 거의 매일 찾아

가 우리도 미국, 일본과 같은 Amateur(Ham) Radio 허가를 줄라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무선 법규가 만들어지고 통신사 자격시험을 혼자 보고, 혼자 합격했다. 신이 나서 단파 통신장비 구입과 공부를 시작했다. 이후, 내무부 치안국 특수정보과(중앙정보부 전신)에 간첩으로 몰려 잡혀갔다. 혐의는 풀리

미국에서 기술 개발 책임자로 근무



지도해 준 은인 Dr. C. Lester Hogan



Prof. M. O. Thurston

Ohio State Univ. 내 반도체 연구소에서 Prof. Thurston의 선임 연구원으로 실질적인 소장 업무를 수행했다. 박사학위를 받은 후, Motorola Semiconductor로 입사했다. Motorola에서는 신소재 개발 책임자로 7년 동안 거의 모든 반도체 개발을 필자가 직접 담당했다. 특히 최신투도한 개발 계획에 기대 이상의 최첨단 반도체를 개발 공급해서 회사



고 도리어 단파 통신으로 간첩 잡는 일에 협조하기로 했다. 그토록 원하던 단파 무선국 HLITA를 운영하게 되었다. 필자는 특수정보과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한국 아마추어 무선연맹 KARL을 창설했다. 당시, 단파=간첩으로 여기던 시절이었다. 위 사진이 창설 실무진이다. (좌로부터 이동호, 이덕빈, 정해선,

강기동) 이덕빈 씨는 필자를 미국 Ohio State Univ로 이끌어주었고, 연맹 창설에 이사진을 맡으신 김규한 KEMKO 사장은 한국 반도체(주) 설립에 전 재산을 털어서 투자하셨다. KARL 창설이 바로 한국 반도체의 뿌리가 된 것이다. 반도체 기술 습득을 위해 1958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Semiconductor Patents
Granted to Motorola

By FRANK GRANZEIER

PHOENIX SPD—Patents covering two manufacturing techniques that counteract surface and bulk defects in semiconductor devices have been awarded to Motorola Inc. based on research work at the company's Semiconductor Products division.

Titles "Semiconductor Device with Passivated Junction," patent # 3,302,076, relates to an improved design for passivated diodes and transistors whereby the electrode configuration for contracting the various conductivity regions of such devices acts to improve their surface states. It covers an invention commonly referred to as "field relief electrode" or "equipotential ring" technology.

This was followed by two patents on the Annular process for manufacturing semiconductors, bringing to 54 the total number of semiconductor patents issued to Motorola within the past two years.

Jack C. Haenichen, Motorola's manager of operations for thyristor products and the man behind Annular, said that the field relief electrode and Annular developments serve complementary roles in device manufacture by controlling surface and bulk defects.

The patent is based on the research of Dr. Ki Dong Kang and David Metz. Ki is manager of surface studies in Motorola's applied science department. David is assistant director of the department.

According to Ki, the invention is applicable to the manufacture of a PN junction in order to improve its electrical performance by controlling surface problems.

Receiving the congratulations of Leo Dwork (R), VP and director of product and operations groups are Ki Dong Kang (L), manager of surface studies in the applied science department; and David Metz, assistant director of the department.

CEO Hogan 사장으로부터 각별한 대우를 받았다. 이렇듯 반도체 연구소와 Motorola에서 연구 개발, 생산 등 당시 최첨단 기술의 모든 경험을 필자의 머리 속에 저장

하고, 이 기술을 한국으로 가져와 씨앗을 뿌려서 결과적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현 삼성과 SK)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한국 반도체 시계집의 大成功

삼성 반도체 통신 10년사 page 172

第2節 前人未踏의 市場…韓國半導體(株)

1. 電子時計用 반도체로 黑字누려

韓國半導體(株)는 회사설립때부터 C-MOS¹⁾ 기술을 이용한 LSI 제품 생산을 목표로 하였으나 확실한 제품선정은 하지 않은 채 工場 준공후부터 공정안정화와 기술인력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여러제품의 試生産에 착수하였다. 다행히 공정준공후 2개월만에 표준형C-MOS로직4000 씨리즈 (Standard C-MOS Logic 4000 Series)²⁾의 試生産에 성공 함으로써 C-MOS/LSI 제품생산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계속하여 전자계산기용 素子 등의 試生産에도 성공하여 C-MOS기술의 소화 및 생산라인의 안정가동이 가능해졌다.

1975년에 접어들면서 韓國半導體는 당시 전세계적으로 크게 각광을 받고 있고 다른제품보다 경쟁력도 뛰어난 「LED」전자손목시계용 C-MOS/LSI 제품」을 최초의 量産製品으로 개발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美現地法人 ICII의 협조를 받아 본격적인 개발작업에 착수했다.

사실 단순조립 생산단계에 머물러 있던 국내 반도체 업계의 수준으로서는 美・日 등 先進 반도체 국가를조차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LED 전자손목시계용 C-MOS/LSI 제품을 개발기로 한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C-MOS 기술의 권위자인 姜起東 社長을 중심으로 한 기술진의 피나는 노력과 ICII파견 기술자의 적극적인 기술지원에 힘입어 마침내 1975년 9월 1일 6기능 LED전자손목시계용 반도체인 「KS-5001」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당시 이 「KS-5001」의 개발은 현재의 1메가 디램開發에 비금기는 획기적 사건으로서 단순조립 생산단계에 머물러 있던 국내 반도체업체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음은 물론 그 수준을 크게 향상시켜 일약 세계 4번째의 C-MOS/LSI 生産國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전자손목시계용 C-MOS/LSI의 가격은 6~8弗이었으나 수요확대에 따른 供給不足 현상으로 인해 24시간 풀가동에도 불구하고 殺到하는 주문에 따라 수 없을 만큼의 好況을 누려, 量産開始 3개월만에 월간 손익을 黑字로 전환시키는 쾌거를 올렸다.

중동전쟁이 유발한 오일쇼크로 전세계가 경제불황에 빠져드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모두가 부정적이던 시계집의 대성공은 삼성 고위층에 강기동 전자 사장 대세론을 야기했다. 겁먹은 강진구 전자 사장은 반도체 기술이 완벽하게 정착됐다고 필자에게 직접 확인하고 필자의 출출을 서둘렀다. 우선 필자의 전자시계사업부를 “그들 차원 결정”으로 밀어부쳐 빼앗고 삼성파견 평이사에게 사장과 같은 재무결재 권

한을 부여했다. 아래 왼쪽은 삼성이 참여하기전 경영진으로 한국측 투자를 대표해서 나온 이상규 아들 이훈(앞에 앉은 사람) 전무하고 딸 그리고 귀국한 필자의 가족 사진이다. 그 아래 사진은 삼성이 투자하기전 한국반도체 일꾼들로 필자가 얼굴은 알아도 이름은 기억 못하지만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올린다. 필자가 퇴사 후, 거의 모두 강 박사 계라고 퇴사되었다. 이들은 반도체가 없던 시절이라 갈 곳도 없었다.



아래는 삼성을 떠난 후, 현대 정주영 회장이 필자를 Sunnyvale로 찾아왔을 때 제출한 현대그룹 전자사업 계획서이다. 한국에서 반도체 제품을 생산하려면 대량으로 같은 것을 찍어내는 Memory 제품이 적합하다고 추천했다. 필자를 사장으로 지명하고 올산까지 가서 환영 만찬까지 받았다. 현대 고위층에 밀고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미국에서 사장직 사업을 전화로 일방 통보했다. 동시에 회사 전화번호도 전

부 바꾸었다. 정주영 회장이 직접 전자사장에 취임하고 발벗고 반도체 사업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필자는 막았다고 안심했는데, 상황은 더 다급해졌다. “나는 더 크게 한다” 동경에서 나온 이병철 회장의 반도체 선언이다. Memory 착수에는 반년 정도 현대에 뒤졌지만 필자가 만든 첨단 C-Mos 공장 기반이 이미 부천에 있어서 삼성이 먼저 Memory 제품을 현대에 앞서 만들게 된다.

본 보 2 시는 1982년 8월 한국의 현대중공업주식회사 부사장 이병철 미국 KDK Electronics Inc 사장 강기동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의 외역서 작성하였다.

용역계약은 현대그룹 신구사업 부부장 이훈은의 초안에 의거 미국 SunnyVale 에서 공동자 대한민국 상항주제 용역사관의 확인을 거쳐 대한민국 과학 기술서의 공식승인으로도 발효된 것이다.

용역계약 기간은 1982년 8월12일부터 1982년 9월5일까지 현대그룹 이훈은부장에게 SunnyVale 에서 계속적인 작업에 용역하고 제반 편의를 제공하였고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하였다.

- 1) 반도체 사업 조직도,
- 2) 반도체 사업 인원계획,
- 3) 반도체 사업 제비한국 기술자명단, 주소, 경력 기,
- 4) 반도체 공장 배치도,
- 5) 반도체 생산기계, 성능, 가격및공급원,
- 6) 반도체 공장 시설장비 규모,
- 7) 반도체, 통신, 자동 제어장치, 자동 자동 전자장치의 종류, 성능, 시장 및 판매계획,

또한 용역계약 기간중 반도체 전문가를 방문자 Los Angeles 등 두번 함께 만나었다.

1982년 9월 10일 Sunnyvale, CA

“현대그룹 신규사업부”에 만드려준 반도체 64K DRAM 사업계획서 삼성보다 반년이 앞서있다

1990년대 초, 삼성 기획실에서 나왔다는 전문작가를 포함한 삼성 반도체 역사 제작 팀이 미국으로 필자를 찾아 왔다. (이들이 삼성 반도체 신화 제작) 필자는 필자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줄 알고 흥분하고 고마웠다. 이들은 Palo Alto에 묵고 있어서 필자는 아들에게 여기에서 2일간 반도체 기술, 실리콘밸리의 특성과 한국에서 한 일 등 모든 성의를 다해 대화와 강의를 했다. 동시에 필자가 보관 수집한 모든 관련 자료를 다 제공했다. (이자료들은 행방불

명) 돌아갈 때,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진 반도체의 신화강이라고 했다. 결과물은 이병철/이건희 업적이 반도체 신화가 되어 나왔다. 필자 강기동의 업적은 이병철/이건희 신화로 바뀌어지고 강기동이란 이름은 지워졌다.

필자는 여기서 삼성 반도체 신화의 지워진 부분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여기에 화보를 올린다. 마감이 없는 글과 화보이지만 읽고 봐주셔서 감사하다. 글: 강기동

한국은 1975년에 일약 세계 4번째 CMOS(LSI)생산국으로 도약했다

韓國半導體

始作의眞實

韓國半導體株式會社 (第三卷) 設立者

姜起東 姜기동

KDK Electronics Publication 2012 - Reno Nevada USA

Link:

1) kdkelectronic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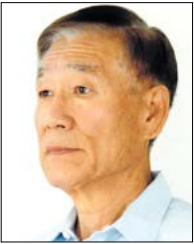
2) http://kdklabs.tistory.com/50

Ki Dong Kang

Email: kdkang@gmail.com

Address: 15240 Redmond Loop, Reno, NV 89511 USA

* 본 글의 내용은 본 회보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내원 (사대 58)

세계 7대 전함과 이순신 ‘거북선’의 재발견

2016년 4월 6일, 미 해군 연구소 기관지 US-NIS News는 역사상 가장위대한 전함 일곱을 선정 발표한 바 있다. 선정 방식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함을 선정하고 그 이유를 밝히라”라는 설문에 응답한 900명의 독자를 포함한 26,000여 명의 관심자 의견을 분석 종합한 것이었다. 이렇게 선정된 7대 전함의 순서와 모습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다시 시대별 특성별로 비교표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이들을 살펴볼 때 첫 눈에 들어 오는 놀라운 점은 상대적으로 장난감 크기에 불과한 우리의 목제 거북선이 90대의 전투기를 싣고 바다 위를 떠다니는 공군기지 역할을 한 철제 항공모함 USS Enterprise, 6.25 한국전에도 참전했던 전함 USS Iowa, 그리고 가공할 원자력 잠수함 USS Nautilus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선정되었다는 현실이다.

또 이 7대 전함을 탄생시킨 소속국을 살펴보면 미국, 영국, 독일, 한국 단지 4개국뿐으로 세계 해양을 주름잡던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이태리, 네덜란드 및 일본은 자취가 없다. 그 중 동양에서는 가장 작은 나라 한국이 유일하게 세계 명품 전함 개발국이 되었으니 이 감동 어이 감당할까?

또 시대적으로는 다른 세계 선진국보다도 무려 220년이나 앞서 묵묵히 막강한 방탄 전함 거북선을 개발하여 일본의 침략 야욕으로부터 나라를 구해 낸 충무공 이순신의 숭고한 애국 헌신 앞에 한없이 초라하고 부끄러워지는 느낌을 금할 수가 없다.

비교표의 상단 1, 2번의 USS Constitution과 거북선은 나무로 만든 목제 전함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항해 방식에 있어서는 전자가 커다란 돛 세개로 받는 바람의 힘으로 추진하는 범선인데 반하여 거북선은 약 80명의 돛꾼이 힘들게 젓는 노의 힘으로 기동하는 인력선이다.

그런데 비교표의 취항 연도에 주목해 보면 거북선보다 무려 205년이나 늦게 나타난 USS Constitution이 거북선을 제치고 첫째로 등재된 불합리성과 마주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SS Constitution의 역사를 알게 되면 그 이유를 추궁할 수도 있다. USS Constitution은 현재도 현역으로 살아 있는 미 해군 전함으로 신화적 상징이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 전함은 1797년 취항한 신생 독립국 미국의 목제 범선 함대(Frigate) 6척 중 하나로 초대 대통령 George Washington이 미 헌법제정 공포 후 명명한 역사적 전함이다.

이 전함은 건조 당시 목조 선체를 철판으로 감싼 혁신적인 철갑전함이었는데 1812년 여전히 세계 최강 해군력을 자랑하던 영

세계 7 대 전함					
순서	이름	소속	분류	취항	길이(m)
1	USS Constitution	미국	목제범선	1797	93
2	거북선	한국	목제방탄	1592	21-34
3	USS Enterprises	미국	항공모함	1936	342
4	HMS Dreadnought	영국	구축함	1906	160
5	USS Iowa	미국	전함	1943	270
6	USS Nautilus	미국	핵잠수함	1930	113
7	SMS Emden	독일	경순양함	1916	151



USS Constitution - Frigate 범선전함 (미국)



USS Enterprise - 항공모함 (미국)



USS Nautilus - 원자력 잠수함 (미국)

국 전함 HMS Gueriere가 미국 상선들을 부당하게 억류함으로써 야기된 해상 분쟁에서 영국 해군의 함포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포탄이 철장갑의 강도를 이기지 못하고 튕겨져 나감으로서 USS Constitution 호는 영국 해군을 패퇴시켜 신화적 명성을 얻으며 세계 제일의 해군력을 확보하는 결정적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이로 인해 USS Constitution 호는 <Old Ironsides>라는 애칭을 얻으며 미국인들의 자부심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 전함은 내구성이 없는 목제 범선이었으므로 취항 84년만인 1881년에 일단 퇴역하여 1907년에는 박물관으로 쓰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미국 시민들의 지극한 사랑으로 대대적인 보수를 거쳐 1934년에는 3년 동안 90개 항구를 순방하는 대순항을 마치고 미 해군의 현역 함선으로 복귀하여 현재는 보스턴(Boston) 항에 정박 중이다.

1997년에는 취항 200주년, 2012년에는 전승 200주년 기념 항해를 한 바 있는데 이 범선이 지나갈 때면 많은 미국 시민들이 부동의 자세로 경례를 한다고 하니 살아있는 전설을 소중히 지켜 나가려는 그들의 애착을 읽을만 하다.

그러나 이들 두 전함의 해전 연도를 비교할 때 1592년 임진왜란의 거북선이 1812년 USS Constitution의 국지전보다 220년, 2 세기가 넘는 엄청난 세월을 앞서서 일본군의 조종 세례를 고역없이 돌파하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적선을 격파한 실적을 결코 넘어설 수는 없는 것이다.

이로 볼 때 거북선을 단연 1위로 평가하는 데도 무리가 없을 것이나 미국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특성상 미국 우선주의의 애교로 접을만 하지 않을가 한다. 오히려 세계 열강의 화려한 명품 전함들을 제치고 우리 한국인 자신들도 미처 인지하지 못한 거북선과 그 창시자 이순신의 위대함을 드높히 평가해 준 미국의 사실주의적 정의 교육, 양심 교육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다른 모든 7대 전함들이 생생한 실존적 사진으로 소개된 반면 사진이 없는 거북선은 고바우 만화작가 김용환 화백의 미공개 거북선 해전도를 찾아 내어 대신해 주며 ‘거북선은 강력한 심리전 무기로 연기를 내뿜는 용머리를 가지고 사실상 침투가 불가능(Virtually Impenetrable) 하였으며 속도 는 빠르고 기동성이 뛰어 났다’고 친절한 설명까지 더해 주었다.

무슨 불평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시대적으로 인류 해양 역사의 맨 앞에 선 전함 거북선과 그 창시자이며 위대한 국토방위의 표상인 충무공 이순신을 우리 한인의 대표적 모범시민과 민족정신의 표상으로 삼아 뚜렷한 한인 정체성이 새롭게 정립되는 긍정적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순신 숭모 교육가

동창회비 온라인 납부 방법

다음의 QR code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링크된 곳으로 이동해서서 '동창회비 납부'를 누르고, 해당 항목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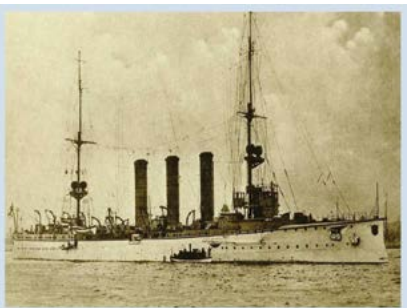
Turtle Boats - 거북선 (한국)



HMS Dreadnought - 전함 (영국)



USS Iowa - 전함 (미국)



SMS Emden - 경순양함 (독일)



이태상 (문리 55)

지난 12월 호

'예술은 구원인가?' 기고를

읽고...

‘예술은 구원인가?’

최근 동료 법정 통역관(스페인어)으로부터 들은 말이다. 누구의 말을 인용한 것인지 는 몰라도, 만인이 수긍할 수 있을 것 같다.

1. 내가 매사에 남을 탓한다면 넌 아직 철부지다. (If you blame others for anything, you are immature.)
2. 매사에 너 자신을 탓한다면 넌 도(道) 길을 닦고 있다. (If you blame yourself for everything, you are learning.)
3. 무슨 일에도 내가 아무도 탓하지 않는다면, 넌 도통(道通)한 경지에 도달한 거다. (No matter what happens, if you blame nobody, you are enlightened.)

앞에 열거한 첫 단계는 '이러면 이래서, 저러면 저래서' 탈만 잡는 자경이고, 둘째는

‘탈’은 연장을 탓하지 않는다는 경지라면, 셋째는 ‘세상 모든 게 다 쓸모 있음’을 깨달은 입신지경(入神之境)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인생 80여 년을 살고 보니 얻게 된 결론이 하나 있다. 작은 그림은 내가 그릴 수 있지만 큰 그림은 그려진다는 거다. 우연 같은 요행, 결코 알 수 없는 신(神) 또는 하늘의 섭리, 아니면 운명이나 숙명 혹은 숙된 말로 팔자소관이라고 밖에 할 수 없으리라. 어차피 우린 모두 하나같이 ‘우물 안 개구리’ 같다면, 마치 어린애들 소꿉놀이하듯 재밌게 재밌게 놀아보려. 어리석게 남과 비교하는 ‘도토리 키재기’ 놀음 졸업하고 말이어라.

이럴 때에야 비로소 ‘이래도 복, 저래도 복’ 만사형통하게 되는 것이라. 인류 역사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예술’이나 ‘종교’ 또는

‘이념’과 ‘사상’을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 바친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이런 것들을 다 ‘허깨비’라고 본다. 실물을 제거두고 ‘그림자’를 쫓는 일이라고 말이다. 다시말해 자연과 삶과 사랑 이상의 예술도 철학도 종교도 있을 수 없다는 거다. 우주자연 만물을 사랑하는 삶, 아니 이런 삶을 사는 한 숨 한 숨 자체가 살아있는 그림이고 글, 곧 그림움이 준 말, 사랑하는 가슴 ‘사슴’이 되는 게 아닐까.

평생토록 회화 그림과 글에 별 관심이 없어 문외한으로 그 아무리 뛰어난 어떤 예술이나 문학의 명작이라도 자연과 삶의 ‘모조품’에 불과하다고 여겨오던 터에 뜻밖에도 지난 2017년 12월 20일자 미주판 한국일보 연예스포츠지 Culture 페이지에서 최문선 기자의 기사 ‘인간의 숨결은 어떤 모양일까---찰나의 날숨을 담다’를 통해 난생 처음으로 내가 좀 이해할 수 있는 예술가를 한 사람 발견하게 된 것 같다. 그 기사 일부를 옮겨본다. (웃 본 독자를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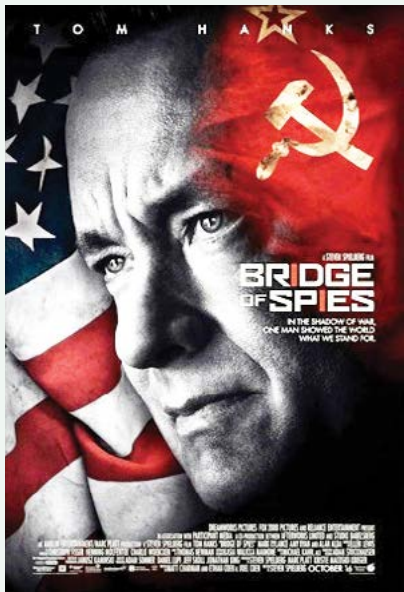
숨은 어떤 모양으로 공기에 스며들까. ‘과학하다 예술하는 작가’ 마이클 주(52)는 그런 게 궁금해졌다. 찾아낸 답과 답을 찾은 과정을 작품으로 만들어 서울 소격동 국제 갤러리에서 열리는 개인전에 내놔다. 표제작 ‘싱글 브레스 트랜스퍼(Single Breath Transfer 일산화탄소 폐확산능 검사)는 색색의 유리 조각 12점이다. 종이, 비닐 봉지

에 붙여 넣은 숨을 질소가스로 순식간에 얼린 뒤 유리로 캐스팅을 뒀다. 숨결이 바람이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조각으로 만든 것. 작가가 확인한 날숨의 모양은 핵폭발로 생기는 버섯구름을 닮았다. "내쉬는 동시에 흩어지는 숨엔 형태도 시간도 없다. 보이지 않는 것. 찰나의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다."

그렇다면 열심히 치열하게 사는 대신 사는 시늉만 내면서, ‘작가’다 ‘예술가’다 문화적인 귀족 특권층으로, 아니면 눈에 보이는 사람과 물질 ‘사물’조차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신’을 섬긴다는 ‘성직자’로 행세하는 행태를 어떻게 봐야할까.

그래서 우리 각자는 스스로를 사랑으로 살리는 것만이 참된 ‘구원’이라는 생각이다. 지난 연말 사이니 중현 현역 아이돌 슈퍼스타의 사망소식 비보를 접하고, 너무도 안타깝고 애처롭게 유감스러운 것은 중현이 ‘예술가’로서 창조적인 삶을 살아주었던 라면 그 얼마나 좋았을까. ‘스포츠’ 하듯 남이 만들어 낸 게임의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예술’ 하듯 제 삶의 룰들(rules)을 제 맘대로 만들어가면서 말이다. 이런 뜻에서라면 ‘예술은 구원’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예술이 스포츠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삶 자체가 최고의 예술이라고.

만, 협상 역을 맡기로 한다. 베를린에서 만난 동독 측 당국자는 미국 유학생을 풀어줄 테니 동독을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해달라고 한다.



영화 포스터. 2015년 개봉. 2시간이 넘는 긴 영화이지만 흥행에도 성공했고 비평가들에게서도 좋은 반응을 받았다.

그러나 CIA는 이 유학생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Powers가 정보를 주기 전 빨리 그를 받아 오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소련 또한 동독이 원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나 Donovan 변호사는 결심한다. 2대1 맞교환을 하기로. 그리고 강수를 던진다. 2대1 교환이 아니면 없던 일로 하자고. 최후통첩을 던져 놓고 전화를 기다리는데 고뇌와 고통의 시간이다. 마침내 2대 1 교환에 동의한다는 전갈을 받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긴장은 팽팽히

계속되는데... 포츠담과 베를린을 잇는 다리 위에서의 맞교환 장면은 영화를 직접 보셔야 한다.

교환이 끝난 후에도 Donovan 변호사는 자리를 뜰 수가 없다. 과연 Abel은 소련 귀환 후에도 무사할까 하는 착잡한 심정에 사로잡혀서.

이 영화는 Jason Bourne 같은 액션은 없다. 총도 등장하지 않는다. 살인도 없다. 쫓고 쫓기는 장면도 없다.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영화는 더 현실감이 있고 진지하게 다가온다. 그러면서 관객들에게 생각할 것들을 던져 준다. 바로 Donovan 변호사도 가진 걱정인데, Abel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Powers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다. 미국은 미국대로 Powers가 이종간첩이 되지 않았을까 의심하고, 소련은 소련대로 같은 의심을 가지고 있고. 더더구나 소련이 Abel을 죽여 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말이다. 나름대로 조국을 위한 애국 행위를 한 어떻게 보면 영웅인 두 인간. 가혹한 냉전 체제 속에서, 이렇게 애국 행위를 하고서도 두 사람은 목숨마저도 그저 조국의 처분에 맡겨야 하는 상황.

체제가 무엇이길래, 이념이 무엇이길래 인간은 이렇게 제 할 일을 다 하고서도 그저 정부의 폐기품이 되어야만 하나? 한국에 비하면 그래도 미국이나 소련은 낫다. 같은 언어, 같은 민족의 남한과 북한은 다른 이념과 체제 때문에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의 희생을 있었던가? 서로가 서로를 죽였던 끔찍한 전쟁을 치렀음에도, 그 희생은 오늘날에 이어지고 있지 않은가?



한수웅 (의대 55)

역강하면서도 서정적인

테너 프랑코 코렐리

(Franco Corelli)

내가 코렐리를 처음 본 것이 1967년 4월 그가 메트(Metropolitan Opera)의 순회공연자 보스턴에 왔을 때였다. 그는 흰찰한 키에 이목이 정연한 대단히 날씬한 미남형 중년 신사였다. 그가 마스네의 ‘베르테르’에 출연하러 온 것이다. 그가 무대에 오르자 요란한 박수가 장내를 진동하였다. 그 날씬하고 부드러운 보이는 몸에서 나오는 음성은 대단히 인상적이었다. 그의 음성을 드라마틱 스피트로 통상 분류하는데 대단히 웅장하고 남성다운 매력적인 목소리이다. 그는 부단한 노력과 연마로 자기 스스로 새로운 발성법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철저하게 이룩한 그의 창법을 판정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상충하지만 그는 20세기의 가장 훌륭한 테너의 한사람으로 추앙받고 있으며 많은 팬들이 그를 ‘테너의 왕자(Prince of Tenors)’라고 부른다.

물론 그는 그의 배우같은 미끈한 풍채의 덕분도 있지만 그의 남성적인 역강한 음성때문에 20세기 테너로서의 으뜸자리에 오르게 된다. 우선 그가 무대에 서면 6척 넘는 키에 그의 반짝이는 검은 눈동자가 장내를 완전히 제압해 버린다. 그의 우렁찬 목소리는 찬란히 진동하면서 ‘높임 C’까지 유연히 올라가며 언제든지 그는 뽀뽀같은 서정적인 부드러운 음성을 본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그의 창법을 일반적으로 벤아미노 질리(Beniamino Gigli)에 비유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코모 라우리-볼피(Giacomo Lauri-Volpi)의 전통적인 벨 칸토(bel canto) 창법에 비유하기도 한다.

출생과 성장

여기에서 그의 인생역정을 더듬어 보기로 하자. 그는 동북부 이탈리아 항구도시 안코나(Ancona)에서 1921년 4월에 출생하였다. 일반적으로 그의 집안에 음악적인 재질이 없었다고들 하지만 그의 할아버지 아우구스토(Augusto Corelli)는 35세때 오페라 테너로 입신하였고, 그의 친형 알도(Aldo)는 학교를 중퇴하고 바리톤으로 전향하였고, 그의 삼촌 두사람이 안코나의 극장 코러스 대원으로 활약하였다. 그의 부친은 해군조선기술자였지만 그의 부모는 음악적 재능을 보이지 않았다. 어린 프랑코는 바다를 몹시 좋아하였다. 그래서 그는 부친의 생업을 이어 조선기사가 되려고 볼로냐대학 해양공학부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그는 늘 친구와 어울려 노래부르기를 좋아하였다.

그러던 하루 그는 친구를 따라 피렌제로 가서 음악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하였다. 그때 판정관의 한 사람이었던 작곡가 피체티(Pizzetti)가 성악공부할 것을 그에게 권장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장 페사로음악

원에 입적하여 오페라를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 파보니(Rita Pavoni)에게 사사하였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다. 코렐리는 고음정을 모두 잃고 말았다. 그후 마리오 델 모나코(Mario Del Monaco)의 스승 멜로키(Arturo Melocchi)의 제자 Scaravelli를 통하여 어깨 너머로 배운 발성법을 자기에게 맞도록 개발하였다. 그리고 그는 델 모나코의 발성법을 열심히 분석하고 연구하였다.



독작적인 발성법을 개발

훗날 코렐리는 제롬 하인즈(Jerome Hines)에게 자기의 발성법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멜로키는 이탈리아에 있어서는 제일가는 (발성법)기술자로 알려졌다. 나의 친구 Scaravelli가 그에게서 레슨을 받고 와서 나에게 그 내용을 그대로 말해주어서 나는 그의 발성법을 그대로 배웠다. 그리고 나 자신은 두번 멜로키의 레슨을 받은 적이 있다. 그의 발성법은 한 음정 한음정을 성대를 통하여 방사(放射)하는 형식인데 이는 대단히 간단한 방법으로 인두를 낮추어 인후를 최대한으로 넓히는 방법이었다.

그는 인두를 너무 낮추어서 음성의 정교함에 지장이 생기는 것에 착안하여 인두를 부동(浮動)시키는 변법을 고안하였다. 그러는 한편, 코렐리는 카루소, 라우리-볼피, 페르틸레(Aureliano Pertile) 및 질리의 음반

을 들으면서 발성법을 연구하였다.

‘로마오페라극장’에 발탁

1951년 여름 로마오페라좌의 지휘자가 ‘스폴레토 극장의 경연대회에 참가하기를 종용하였다. 코렐리는 오페라 ‘카르멘’의 돈호제역으로 참가하여 우승하였다. 그 결과로 1951년 11월에 그는 ‘트로바토레’의 만리코(Marrico)로 로마오페라좌에 데뷔하였다. 그 다음해에 그는 이탈리아 전국의 작은 오페라극장에 출연하고 또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왔다. 1953년 그는 로마오페라좌의 중견 테너로 입직되어 1958년까지 있으면서 벨리니의 ‘노르마’(Norma)에 칼라스(Maria Callas)의 상대역 폴리오네로 등단하였다. 이것이 이들의 첫 상견이었다. 칼라스는 당장 그의 저력을 알아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그후 칼라스가 은퇴할 때까지 여러번 상대역으로 출연하였다. 1956년에 ‘페도라’(Fedora), 1958년에 ‘해적’(Il Pirata), 1960년에는 ‘폴루이토’(Poluito) 등에서 함께 출연하였다. 그러나 1958년 1월 2일 로

1957년 그는 소프라노 로레타(Loretta Di Lelia)와 교제한 끝에 결혼하였다. 결혼후 그녀는 전적으로 그를 뒷받침하였다. 결혼하기전 로마에서 공연을 마친 후 그녀가 한번 무대뒤에 서명받으러 온 것이 인연이 되었던 것이다.

1958년 그는 나폴리의 산 칼로 극장에서 오페라 ‘운명의 힘’(La Forza del Destino)의 돈 알바로(Don Alvaro)로 출연하여 레오노라로 출연한 테발디(Renata Tebaldi)의 상대가 되었고, 1959년에는 ‘아드리아나 르코브라’(Adriana Lecouvreur)에서 마그다 올리베로(Magda Olivero)를 상대하여 마무리지 오(Maurizio)로 출연하였다.

1960년대에 이르러 그는 총체적으로 30개의 역을 연출하였는데 여기에는 남들이 전혀 출연하지 않은 오페라도 섞여있다. 예를 들면 스폰티니(Spontini)의 Agnese di Holenstauffen, 헨델(Handel)의 Giulio Cesare와 Hercules, 프로코피프(Prokofiev)의 전쟁과 평화 및 게리니(Guidi Guerrini)의 Enea 등이다.

연기실력도 대단해

코렐리는 음성뿐 아니라 연기실력도 영화배우들을 능가한다. 그의 연기를 영상으로 보는 것이 한층 더 실감나기도 하다. 여기에 오페라의 진미가 있는듯 하다. 지금 시중에 나온 DVD를 한번 점검해 본다.

1954년 9월26일에 제작한 I Pagliacci에 Mafalda Micheluzzi(Nedda), Tito Gobbi(Tonio) 등과 Canio로 나온 코렐리의 연기는 정말 걸작중의 걸작이다. 즉 연예인으로서의 그의 진가를 보여준다. 1955년에9월 24일 밀라노에서 제작한 Tosca에 Renata Capnist(Tosca), Carlo Tagliabue(Scarpia), Antonio Sacchetti(Angelotti) 등과 함께 Mario Cavaradossi로 출연한 콜렐리의 연기는 가관이다. 특히 그의 ‘별은 빛나고’(E lucevan le stele)는 명창중의 명창이다.

1956년 6월 13일에 제작된 Carmen에서 Belen Amparán(Carmen), Anselmo Colzani(Escamilo), Elda Ribetti(Micaela) 등과 함께 돈호제로 등장한 코렐리의 열창과 열연은 모든 영화배우들을 제압하고도 남음이 있다. 역시 음악이 감정의 표출을 상승시킴을 볼 수 있다. 실로 오페라의 진수를 보여주는 장면장면들이다. 1958년 12월 23일에 방영된 Turandot에 Lucille Udovich(주제역), Renata Matiolli(Liu) 등과 함께 Calaf로 분장한 콜렐리의 열창과 열연은 대단히 특출하다. 특히 그의 아리아 ‘아무도 자지못해’(Nessun dorma)는 대단히 인상적이다. 특히 1973년에 제작된 Andrea Chénier에 Coletina Casapietra (Maddalena), Renato Cappuccilli (Gerard)와 함께 주제역으로 나온 코렐리의 비통한 열창의 발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시인다운 기질을 부각시키고 있다.

항상 준비성이 대단해

그는 어느 출연을 위하여서도 부단한 노력으로 늘 준비하고 고민한다. 그래서 그는 항상 준비를 오래 시키는 비스콘티(Luch-

동창회비 (1차 회기: 2017. 7. 1 ~ 2018. 6. 30)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 표: 2차 회기까지 모두 내신 분

남가주 SCA/NV	박민정 (음대 80) 박범순 (가장 70) 박병원 (의대 49) 박부강 (사대 64) 박성욱 (상대 58) 박순자 (간호 60) 강정훈 (미대 56)* 강종석 (공대 48) 강조석 (상대 81) 강홍채 () 강희창 (공대 57) 고석규 (치대 65) 고석원 (문리 50) 곽웅길 (법대 59) 권기산 (상대 72) 권시한 (상대 58) 권영달 (문리 50) 권재균 (공대 51)	이영송 (치대 63) 이명일 (문리 53)* 이원익 (문리 73) 이원택 (공대 65) 이은경 (간호 80)* 이장길 (치대 63) 이정근 (사대 60) 이정지 (사대 70) 이정화 (공대 52) 이정희 (음대 55) 이재권 (법대 56) 이재현 (상대 58) 이재홍 (공대 71) 이종모 (간호 69) 이준호 (상대 65) 이충희 (공대 53) 이재진 (문리 55) 이해영 (공대 56) 이호진 (간호 74) 이홍환 (상대 58) 이휘영 (법대 59) 이희중 (공대 68) 임동규 (미대 57) 임동호 (약대 55) 임문빈 (상대 58) 임진현 (치대 68) 임창희 (문리 53) 임화식 (치대 59) 장소현 (미대 65) 장인복 (수외 70) 장인숙 (문리 61) 손기용 (의대 55) 손선행 (간호 69) 손학식 (공대 51) 신동국 (수외 76) 신규식 (농대 61)	한충철 (치대 62) 한효택 (공대 60) 한효동 (공대 58) 허영진 (문리 61) 헌기춘 (문리 64) 홍동식 (법대 64) 홍석관 (사대 47) 홍성진 (약대 73) 홍수웅 (의대 59)* 황선주 (간호 69)* ● ● ● ● ● ● ● ● 북가주 SAN FRANCISCO 강명식 (의대 61) 강종주 (문리 62) 강재호 (상대 57) 권오형 (사대 61) 김명찬 (문리 67) 김병덕 (법대 58) 김병호 (상대 57) 김영석 (상대 62)* 김윤범 (의대 59) 김옥경 (음대 64) 김원기 (사대 50) 김정복 (사대 55) 김정희 (공대 56) 김현왕 (공대 64) 김형동 (법대 67) 김희봉 (공대 68) 남광순 (공대 64) 박경룡 (약대 63) 박서규 (법대 56)* 박성우 (공대 59)* 박승성 (법대 53)* 박종영 (상대 52)* 부영무 (치대 72) 정창순 (공대 69) 송영훈 (상대 57) 안병협 (공대 58) 안호삼 (문리 58) 온기열 (의대 65)* 유두영 (공대 55) 유승일 (의대 59) 이강우 (문리 59)* 이관모 (공대 55) 이상형 (공대 57)* 이흥기 (공대 62) 임정란 (음대 76) 전광신 (사대 64) 정구남 (공대 52) 정지선 (상대 58) 정진주 (공대 56) 정유석 (의대 58) 조태록 (사대 60) 최경선 (농대 65) 한상봉 (수외 67) 홍금삼 (문리 61) 홍병익 (공대 68) 황도하 (의대 65)	팍션섬 (공대 61)* 권문운 (미대 61) 권영국 (상대 60) 김광현 (미대 57) 김동진 (약대 56) 김동환 (약대 56) 김명송 (상대 65)* 김명경 (공대 60) 김민정 (약대 61) 김병권 (문리 63) 김봉연 (약대 52)* 김봉현 (사대 54) 김상만 (법대 52) 김석식 (의대 58) 김석자 (음대 61) 김선현 (약대 56) 김성호 (공대 71) 김세중 (공대 50) 김수산 (의대 52) 김수신 (약대 62) 김영무 (공대 75)* 김영애 (사대 56) 김영일 (약대 66) 김영철 (의대 55) 김영희 (간호 53) 김예륜 (의대 55) 김완주 (의대 54) 김용술 (상대 56) 김용연 (문리 63) 김육천 (의대 59) 김유선 (간호 64) 김윤수 (상대 50) 김은섭 (의대 53) 김인형 (미대 59) 김진현 (약대 54) 김재경 (농대 58) 김중률 (사대 51) 김중현 (법대 57) 김진자 (간호 60) 김창화 (미대 65) 김태일 (공대 68)* 김한총 (의대 56)* 김혜암 (의대 52) 김현중 (공대 63)* 김훈일 (공대 60) 김취극 (약대 54) 김희자 (미대 66)* 라준곡 (공대 48) 맹광호 (문리 71) 문석면 (의대 52)* 민발식 (의대 60)* 민병갑 (문리 63) 박두순 (공대 58) 박수만 (의대 59) 박승연 (법대 56) 박승하 (간호 69) 박태양 (상대 63) 박진우 (상대 77) 반영철 (약대 54) 반준재 (의대 63) 배영애 (간호 47)* 배상규 (약대 61) 배정희 (사대 54) 변건웅 (공대 65) 변해순 (간호 68) 변호련 (간호 63) 서병선 (음대 65) 서정호 (약대 63) 석진경 (약대 96) 선종철 (의대 57) 성기로 (약대 57) 송갑수 (약대 59)	손경택 (농대 57) 송영순 (사대 60) 송웅길 (대원 69)* 신달수 (공대 59) 신두식 (의대 58) 신동남 (농대 70) 양기명 (약대 49) 양영자 (사대 63) 우대식 (문리 57) 우상영 (상대 55) 유영호 (의대 52) 유재섭 (공대 65) 유택상 (문리 58) 육순재 (의대 63) 윤봉곤 (사대 54) 윤신원 (의대 50) 윤영섭 (의대 57) 윤민숙 (간호 63) 윤 철 (문리 54) 윤희정 (문리 59) 이경림 (상대 64)* 이정태 (공대 63)* 이국진 (사대 51) 이대영 (문리 64) 이성근 (의대 60) 이승일 (영대 66) 이영숙 (간호 56) 이영희 (미대 68) 이윤순 (의대 52) 이진구 (간호 64) 이정은 (의대 58) 이종석 (상대 57)* 이준형 (공대 48)* 이준성 (공대 56) 이종환 (법대 51) 이태상 (문리 55) 이태안 (의대 61) 임금세 (의대 61) 장화자 (간호 60) 전성진 (사대 54) 전재우 (공대 61) 정동성 (상대 58)* 정인식 (상대 58)* 정창동 (간호 45)* 정해진 (법대 55) 주공로 (공대 64) 조경숙 (가장 71)* 조대영 (공대 61) 조종수 (공대 64) 전봉일 (공대 50) 차국만 (상대 56) 차수만 (약대 71) 최구진 (약대 54)* 최수강 (의대 71) 최영태 (문리 67) 최진영 (문리 55) 최한용 (농대 58) 최형무 (법대 69) 한병홍 (문리 71)* 한영수 (의대 61) 한중훈 (공대 54) 이정화 (공대 58) 함종금 (간호 66) 허경열 (의대 73) 허병렬 (사대 42) 허선형 (의대 58) 허유선 (가장 83)* 홍선경 (의대 58) 홍정표 (음대 67) ● ● ● ● ● ● ● ●	뉴잉글랜드 MA/RH/NH/ME/VT 고일석 (보건 69) 곽세홍 (공대 75) 김광수 (자연 73) 김만욱 (약대 56) 김문소 (수의 61)* 김신희 (약대 59) 김 영 () * 김정환 (공대 52) 김제석 (공대 87) 김제호 (상대 56) 김재관 (의대 62) 김 현 (농대 62) 김재희 (의대 56) 백지선 (수의 94)* 송미자 (농대 62) 윤상재 (수의 62) 윤영자 (미대 60) 윤용훈 (공대 67) 윤은성 (상대 66) 이강원 (공대 66) 이영민 (사대 74) 이의민 (공대 68) 이정수 (공대 71) 이재신 (공대 57)* 이희규 (공대 69) 정수인 (음대 76) 장용목 (공대 58)* 정정옥 (의대 60) 정태영 (문리 71) 추창준 (의대 50) 조성호 (공대 85) 최신희 (물리 69) 최종곤 (공대 69) 한승원 (미대 60) 홍지복 (간호 70) 황보민형 (공대 03) ● ● ● ● ● ● ● ● 텍사스 LA/DALLAS 김욱곤 (공대 54) 김종원 (의대 60) 박영규 (사대 66) 박준섭 (약대 63) 유 형 (농대 56) 최진태 (문리 59) 탁혜숙 (음대 67) 휴먼필드 (공대 61)* ● ● ● ● ● ● ● ● 라스베이거스 LV/NV 김영중 (치대 66)* 윤우용 (공대 63) ● ● ● ● ● ● ● ● 룩키마운틴 MT/CO/WY/NM 송요준 (의대 64) 이정화 (공대 56) ● ● ● ● ● ● ● ● 미니소타 MINNESOTA 김권식 (공대 61)* 남세현 (공대 67)* 변우진 (인문 81) 성욱진 (치대 87)	송창원 (문리 53)
----------------------	--	--	--	--	---	---	-------------

동창회비 (1차 회기: 2017. 7. 1 ~ 2018. 6. 30)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 표: 2차 회기까지 모두 내신 분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 회비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 \$200 ☐ \$500 ☐ \$1,000 ☐ \$ ____	☐ \$75 (2017. 7 ~ 2018. 6) ☐ \$150 (2017. 7 ~ 2019. 6) ☐ \$3,000 (중신이사회비)	☐ \$240 (2017. 7 ~ 2018. 6) ☐ \$480 (2017. 7 ~ 2019. 6) 일반 광고 문의: general@snuuaa.org	☐ Scholarship Fund (장학금) \$ ____ ☐ Charity Fund (나눔) \$ ____ ☐ Brain Network 후원금 \$ ____ ☐ 모교발전기금 \$ ____

후원금 용도: **장학금**은 뛰어난 동문들의 학업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Charity Fund**는 동창회 자선 사업을 위해 쓰입니다. **모교발전기금**은 모교와 미주 동창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쓰입니다. **Brain Network 후원금**은 석학 초빙 강연회 등 동문들간의 네트워킹 증진을 위해 쓰입니다. **중신 이사회비**는 SNUAA-USA Century Foundation에 적립됩니다. **동창회 후원금과 동창 회비**는 회보 발간 및 미주 동창회 행사와 제반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동문님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Total: \$ _____. Make check payable to **SNUAA-USA**.

보낼 곳: SNUAA-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 Tel: 978-835-0100 Email: general@snuaa.org

한글이름:	영문이름:	단과대:	입학연도:	지부:
E-mail:		Cell Phone:		
주소:				

미주 동문 업소록

CA 남가주
광고
Pancom 광고기획 김영민 (농대 72) Tel.(213)427-1377 / youngkim@pancom.com 3701 Wilshire Blvd. #800, LA, CA 90010
공인회계사
Kyung Moo Kim CPA & Accounting Coporation 김경무 공인회계사 (공대 69) Tel.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A, CA 90010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공인회계사) 강신용 (사대 73) Tel. (213) 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el. (213) 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A, CA 90010
 GSK LLP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 Business Consultants 강호석(상대81), 김낙구(상대67), 강동순(법대59) Tel. (213) 380-5060(LA), (714) 530-3630(Garden Grove, CA)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el. (213) 739-5700, (714) 525-1821 schacpa@gmail.com 3440 Wilshire Blvd. #807 LA, CA 90010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Jun Chang CPA & Associates, AC 장 준 (인문대 85) Tel. (818) 772-2811, (213) 272-2460 jun@junchangcpa.com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3580 Wilshire Blvd. Suite 900 Los Angeles, CA 90010
재정 / 보험 / 컨설팅트
AXA Advisor Paramount Planning Group 조임현 (간호대 72) Tel. (213) 487-3253 3435 Wilshire Blvd. Ste.2500 LA, CA 90010 im.cho@axa-advisors.com
운송 / 유통 / 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 / 강관도매) 이병준 (상대 55) Tel. (949) 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OR 오레곤
Flonomix Inc. 박희진 (농대 78) Tel. (503) 648-0775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식품 / 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el. (562) 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el. (714) 641-4730 1526 Brookhollow Dr, Santa Ana, CA 92705
의료 / 약국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el. (213) 386-5002 2528 W.Olympic Blvd.,#103 LA CA 90006 drcchung@yahoo.com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el.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100 LA CA 90004 www.beverlycardiology.com
정수만 암내과.혈액내과 정수만 (의대 66) Tel.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KMAX 유창호(약대74) Tel. 213-381-3200 814 S. Alvarado St. LA. CA 90057
Gilbert Pharmacy 최무식 (약대 66) Tel. (714) 638-8230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Seoul Medical Group ★ 차민영 (의대 76) Tel: 213-480-7770 (877) 764-1405 520 S. Virgil Ave.#103 LA, CA 9000
나성약국 ★ 임낙균 (약대 64) Tel: (213) 387-3030 3030 W. Olympic Bl. #118 LA. CA 90006
치과
오흥조(치대 56) Oh, Heung Jo 2860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8205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el. (408) 732-0493 877 W.Fremont Ave.#H3 Sunny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el.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ddsshp@yahoo.com

우주개발 / 기술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el. (714) 952-2240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jchung@taycoeng.com www.taycoeng.com
Link TV Media 김원탁(공대 65) 17607 Sherman Way #204 Van Nuys, CA 91406 (O) (818) 514-6780 (M) (818) 720-2373 linkboxusa@gmail.com www.linkboxusa.com
동물병원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 (수의대 76) Tel. (714) 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의대 66) Tel. (909) 627-0951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의대 67) Tel. (510) 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변호사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Tel.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Kenneth T.HAAN & Associates, APLC 한태호 변호사 Tel. (213) 639-2900, Fax. (213) 639-2909 3699 Wilshire Blvd. Ste.860 LA,CA 90010 www.haanlaw.com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Jennie Lee 이중모 (간호대 69) Realtor Tel. (714) 396-0624 30 Corporate Park, Ste.207 Irvine, CA 92606 jenniecelee@gmail.com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 (공대 66) Tel. 213-381-3610 2740 W. Olympic Bl. Los Angeles, CA 9006
기타
Turbo Air, Inc. ★ 서치원 (공대 69) Tel: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라 캐나다 한인교회 독고원 (공대 65) Tel. (818) 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클리닉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Tel. (909) 882-3800(B), (714) 323-8612(C)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el.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CA 북가주
두리 하나 결혼정보 정지선(상대 58) '높은 성혼율과 많은 초혼, 재혼자 데이트 중, 서울대 동문과 동문자녀 특별할인' Tel. (510) 224-0760 13766 Aurora Dr. San Leandro, CA 94577 www. 2makes1.com / 1durihana@gmail.com
비영리법인 해양 극지에너지
 ISOPE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Offshore and Polar Engineers P.O. Box 189, Cupertino, California 95015-0189 Jin S Chung 정진수 (공대 56) Ocean, Arctic, Energy www.isope.org, jschung@isope.org
GA 조지아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 (공대 76) Tel. (404) 579-8282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Wesley & Associates, CPA 윤태우 Tel. (770) 451-1850 3700 Crestwood Pkwy, Suite 380, Duluth, GA 30096
PA 필라델피아
음식점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 (공대 61) Tel. (267) 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ASSI Plaza)
동물병원 / 치과
Cottman Animal Hospital 주기목 (수의대 68) Tel. (215) 745-9030 1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el. (610) 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건축
Timothy Haahs & Assoc. 손재욱 (생활과대 77) Tel. (484) 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te.100 Blue Bell, PA 19422

NV 네바다
이 자리에 광고하실 분을 모십니다.

NY / NJ (뉴욕 / 뉴저지)
공인회계사
Changsoo Kim, CPA P.C. 김창수 (약대 64) Tel. (212) 760-1768, (917) 647-0606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changsookimcpa@hotmail.com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el.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변호사
신응남 변호사 신응남(농대 70) Tel: (718)463-3131 / petershinesq@gmail.com 158-14 Northern Blvd. 2Fl. Flushing, NY 11358
부동산
Evergreen Realty 이재원 (법대 60) Tel. (201) 944-5353 242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COSMO Realty 이재덕 (법대 60) Tel. (201) 944-4949 258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www.cosmorealty.com
Promise Realty 김도명 (농대 70) 조민형 (음대 84) Tel. (201) 585-7766 240 Grand Ave Suite 2 Leonia NJ 07605 Email: Promise@DonaldRealty.com
리테일러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대 60) Tel.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Tel. (718) 995-7060 147-38 182nd St.Jamaica, NY 11413
치과
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 김성래 (치대 76) Tel. (201) 666-2828 570 Piermont Rd., Closter Commons # C1, Closter, NJ 07624
내과
백승원 위장내과 ANDREW S. BAIK M.D. 백승원 (의대 73) Tel. (201) 302-9774, (732) 744-9090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Chang Ho Suk, M.D. 석창호 (의대 66) Tel. (718) 461-6212 41-61 Kissena Blvd # 27, Flushing, NY 11355
심인보 심장내과 IN-BO SHIM, M.D. 심인보 (의대 77) Tel. (201) 569-1800, (718) 836-0009 700 Palisade Ave 1St Fl.Englewood Cliffs, NJ 07632 237 82nd St, Brooklyn, NY 11209
이창석 내과 Chang Suk Lee, M.D. 이창석 (의대 72) Tel. (718) 762-4400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재활의학
김치갑 카이로프랙 COMPREHENSIVE PAIN THERAPHY CENTER 김치갑 (의대 73) Tel. (201) 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김승관통증 및 재활의학병원 Seung K. Kim, M.D. 김승관 (의대 70) Tel. (718) 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비뇨기과
윤세웅 비뇨기과 Richard Sei-Oung Yoon, M.D. Ph.D. D.D. 윤세웅 Tel. (718) 335-3333 75-21 Broadway #1, Elmhurst,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알러지
이혁엽 알러지 전문의 Hyok Yup Lee, MD. F.A. 이혁엽 (의대 73) Tel. (201) 568-3800, (718) 321-7366 385 Sylvan Ave. E.C., NJ 07632 144-24 37th Ave. Room#LD Flushing, NY 11354
소아과
박범열 소아과 Beum Yul Park, M.D. 박범열 (의대 75) Tel. (718) 229-1188, (718) 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박종호 소아과 C. Thomas Park, M.D. 박종호 (의대 79) Tel. (201) 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한의원
이수호 한의원 이수호 (보건대 69) Tel. (718) 353-6207 36-32 Union St. #3F Flushing, NY 11354
동물병원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의 81) Tel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MD-VA 워싱턴 DC
식품 / 음식점
우래옥 백행남 (문리 60) Tel. 703-827-7300 8240 Leesburg Pike, Vienna, VA 22182

MD-VA 워싱턴 DC
치과
이준영 치과 이준영 (치대 74) Tel. (301) 220-2828, (301) 926-9692 6201 Greenbelt Rd. SieU-10. College Park, MD 20740 8931 Shady Grove Ct. Gaithersburg, MD 20877
엔지니어링 컨설팅
Drivetech, Inc 엄달용 (공대 69) Tel. (703) 489-2474 25492 Carrington Drive, South Riding, VA 20152 www.drivetechinc.com
재정 / 보험 / 컨설팅트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Tel. (703) 663-8400(O), (703) 785-8467(C), 7023 Little River Tpke, #403, Annandale, VA 22003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욱현 (경영대 84) Tel. (301) 279-6969 414 Hungerford Dr. #104 Rockville, MD 20850 www.faclan.com
부동산
BPS Appraisal Company 박평일 (농대 69) Tel.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내가 번 돈 내가 쓰자! 다리 떨리기 전에 세계일주!
당신이 꿈꾸는 모든 여행이 가능합니다!
 5대양 6대주에 걸친 폭넓은 네트워크 전세계 파트너십으로 어느곳이든 아주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봉사직원과 현지가이드의 입체시스템, 믿음직한 동행과 함께하세요.
 33년 이상 전문성과 노하우
 어느곳이든 5스타급 서비스와 가이드
 usajutour.com 213-388-4000
광고문의: (484)344-5500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2017년 동창회비를 아직 납부하지시지 못한 동문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속히 동창회비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 \$75, 2년: \$150 / payable to SNUAA-USA)

SNU Alumni Association 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원고를 모집합니다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의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학 환경, 여행, 취미 등]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A4 용지 한장 반 이내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news@snuaa.org 로 보내주십시오.
<편집부>

미주 동창회보는 미주 동문의 역사 기록입니다.

제14대 미주동창회	미주지역 동창회 회장단					
	지역		이름	전화	Email	회계연도
역대회장	남가주 S.CA/NV	회장	강신용 (사대 73)	213-380-1600	aamkocpa@gmail.com	Feb-Jan
		차기회장	한귀희 (미대 68)	805-300-7977	khahn@4apec.com	
	북가주 SAN FRANCISCO	회장	임희례 (간호 73)	831-818-2959	acuheerei@hotmail.com	Jan-Dec
		차기회장				
박윤수 (문) · 강수상 (의) · 이병준 (상) · 오인석 (법) · 이용락 (공) 오희조 (치) · 이영목 (공) · 이진구 (농) · 송순영 (문) · 김은종 (상) 오인환 (문) 명예회장: 손재욱 (가정)	뉴욕 NY/NJ	회장	이대영 (문리 64)	516-770-0070	dyldyl88@hotmail.com	July-Jun
		차기회장	손대홍 (미대 79)	201-388-4700	sohn6305@gmail.com	
	뉴잉글랜드 MA/RI/NH/ME/VT	회장	박영철 (농대 64)	781-674-2498	youngpark6@yahoo.com	Jul-Jun
		차기회장				
제14대 회장: 윤상래 (수) 수석 부회장: 신응남 (농) Brain Network 공동 부회장: 하용출 (문), 이강원 (공) Brain Network 공동 위원장: 강명구 (문), 김병국 (공) 고문: 고일석 (보), 김은한 (의), 정정욱 (의), 김문소 (수)	북텍사스 LA/DALLAS	회장	이석호 (농대 78)	214-244-3630	iseoko@gmail.com	Jan-Dec
	텍사마운틴스 MT/CO/WY/NM	회장	최용운 (공대 77)	480-207-9992	ymcgreencorp@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집행부 본부 부회장: 장수인 (음) 사무총장: 이상운 (수) 재무 국장: 김제성 (공) 총무 국장: 이진희 (수) 총무: 배지선 (수), 총무보: 황보민영 (공) 업무 국장: 정선주 (간) 섭외 국장: 윤용훈 (공) 홍보 국장: 이영인 (사) 조직 및 광고국장: 백옥자 (음) IT 국장: 곽세홍 (공) 문화 국장: 홍선례 (음) 특별 사업국장: 허유선 (가정)	미네소타 MINNESOTA	회장	황효숙 (사대 65)	651-308-0796	sook@nano-dyne.com	Jan-Dec
		차기회장				
	샌디에고 SAN DIEGO	회장	이재봉 (인문 88)	760-585-8396	jebong20@yahoo.com	Nov-Oct
		차기회장				
회장 발령인: 윤상래 (수), 고문: 김은한 (의)	시카고 IL/IN/WI/MI	회장	홍혜례 (사대 72)	773-896-7987	hyerye.hong@gmail.com	Jan-Dec
		차기회장	김승주 (간호 69)	630-341-1943	seungjoochang@gmail.com	
	애리조나 ARIZONA	회장	오윤환 (공대 56)	520-271-2601	youn.oh@gmail.com	
		차기회장				
편집장: 김원영 (미), 편집 고문: 김정현 (공), 신응남 (농) 편집 위원: 곽세홍 (공), 이상운 (수), 이진희 (수), 김제성 (공), 배지선 (수), 장수인 (음), 정태영 (문), 이영인 (사), 윤용훈 (공), 허유선 (가정), 홍선례 (음), 한정민 (농) 지역 기자단: 홍선례 (LA), 허유선 (NY), 한정민 (DC)	앨라스카 ALASKA	회장	윤재중 (농대 55)	907-223-0887	jaejoon@hotmail.com	
	오레곤 OR/ID	회장	김기린 (사대 75)	360-213-5476	blueberryfield@gmail.com	Jan-Dec
		차기회장				
IT위원장: 김정현 (공)	오하이오 OHIO	회장	이성우 (상대 72)	614-370-5761	rimshake@ameritech.net	
		차기회장				
	워싱턴 DC DC/MD/VA/WV	회장	안선미 (농대 65)	347-776-0304	sunmi_ahn@yahoo.com	Jul-Jun
		차기회장	정세균 (자연 82)	703-785-8467	saekewn@gmail.com	
논설 위원장: 이항렬 (법) 논설 위원: 고병철 (법), 백 순 (법), 김용현 (경), 김창수 (약), 민경훈 (법), 유재풍 (법), 이석구 (문), 이원영 (인), 이채진 (문), 장석정 (법), 정홍택 (상), 조동준 (의), 차민영 (의), 최용완 (공), 하용출 (문), 김 영 (수), 강영국 (수), 정태영 (문), 박평일 (농)	워싱턴 주 WASHINGTON	회장	류성렬 (공대 72)	425-786-4766	stiinc94@gmail.com	Jan-Dec
		총무	임현민 (공대 84)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유타 UTAH	회장	김한석 (공대 93)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Jan-Dec
		차기회장				
회칙 위원회: 위원장 한재은 (의) 회칙위원: 김병연 (공), 김용현 (상), 서종민 (공), 이강원 (공), 이민연 (법), 함은선 (음)	조지아 GA/AL/MS	회장	주지영 (문리 66)	706-338-4520	jane.chu.ga@gmail.com	Jan-Dec
		차기회장	공영식 (사대 79)	770-880-5816	youngskong@yahoo.com	
	중부텍사스 MID-TEXAS	회장				
SNUAAUSA CENTURY FOUNDATION 위원회: 위원장 이상강 (의) 회관 건립 연구 위원회: 위원장 김병연 (공), 고문 박종수 (수) 회보 개선 위원회: 위원장 주기록 (수) 사회 봉사 위원회: 위원장 황선희 (수)	필라델피아 PA/DE/S.NJ	회장	박혜란 (음대 84)	215-499-0320	helen4music@hotmail.com	Jul-Jun
		차기회장				
	플로리다 FLORIDA	회장	정치영 (법대 76)	305-665-1961	cychyung@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장학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수), 공동 위원장: 김용구 (공)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캐롤라이나 SC/NC/KY	회장	지원식 (공대 85)	919-913-5570	wschee@gmail.com	
		차기회장				
	커네티컷 CT	회장	유시영 (문리 68)	203-305-3910	t60syu@gmail.com	Jan-Dec
		차기회장				
포상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회장) 위원: 각 지부 회장	테네시 TENNESSEE	회장	김상호 (공대 86)	856-386-1094	kimsh@oral.gov	Jan-Dec
		부회장				
	하와이 HAWAII	회장	성낙길 (문리 77)	808-956-2611	nsung@hawaii.edu	Jul-Jun
		총무	전수진 (식공 89)	808-956-8283	soojin@hawaii.edu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회장)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하를랜드 IA/MO/KS/NE/AR/OK	회장	오명순 (가정 69)	913-709-2334	msoonbae@gmail.com	Sep-Aug
	휴스턴 HOUSTON	회장	구자통 (상대 70)	713-206-1942	jykey2003@yahoo.com	Jan-Dec
		부회장				
감사: 김명승 (상), 박영철 (농)	캐나다 밴쿠버	회장	이명규 (농대 69)	778-378-7339	nycmikelee@gmail.com	Jan-Dec
		부회장	김종욱 (공대 70)	604-524-0101		
	캐나다 앨버타	회장	정중기 (공대 70)	403-617-7585	movics@shaw.ca	Mar-Feb
		부회장				



jayone.com

한인대표 식품기업
자연나라로 성장 하겠습니다!

15
SINCE 2003
ANNIVERSARY

Tel: 562-633-7400

대표: 이승훈 (상대 74)

제14대 미주동창회 집행부
(회장 윤상래)의
출범을 축하합니다

Jayone 대표: 이승훈 (상대 74)

우래옥
Woo Lae Oak

8240 Leesburg Pike
Vienna, VA 22182

Reservation
Tel: 703-827-7300
woolaedak.tysons@gmail.com

대표: 백행남 (문리 60)



한남체인의 門

새벽 5시,
고객을 맞을 준비로 바쁜 LA 한남체인

저렴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하는 문,
신선하고 또 신선한제품에만 너그러운 문,
품질이 좋지 않으면 굳게 닫히는 문,
그러나 세상 사람 모두에겐 활짝 열려있는 문 -

**어서오세요! 여기는 365일,
고객과 함께하는 한남체인입니다**

하기환 (공대 66)

LA점
(213) 382-2922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토렌스점
(310) 539-8899
3030 W. Sepulveda Blvd.
Torrance, CA 90505

플러튼점
(714) 736-5800
530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다이아몬드바점
(909) 839-1121
21080 W. Golden Springs Dr.
Walnut, CA 91789

라팔마점
(562) 924-7422
4951 La Palma Ave.
La Palma, CA 90624

